

핵심 역량 강화 교육의 성과 검증을 위한

“제 1회 KNU 8대 핵심역량 실천사례 수기 공모전 ”

- 당선작 사례 예시자료 -



강남대학교
KANGNAM UNIVERSITY

I. 공모전 수상작 예시 사례

1. 8대 핵심역량별 예시 사례 현황

핵심역량	수상내역	제목	페이지
창의성	최우수	창의적인 청년과 전업주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집 밥 공유 플랫폼	3p
자기관리 역량	최우수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	5p
문제해결 역량	최우수	끝씨에서 탈출하기	19p
전문성	최우수	한국어교육학 수업을 발전시켜 영어 멘토링을 진행하다	23p
정보기술 활용 역량	최우수	비전공자가 제 4차 산업에 대비하기	27p
글로벌 역량	최우수	우물 밖의 개구리	29p
대인관계역량	최우수	Present from Canada	51p
의사소통 역량	최우수	기회에도 자격이 있다? 기회를 주면 자격을 갖춘다!	55p

2. 최우수상 수상작 사례

가. 창의성 최우수상

제목	창의적인 청년과 전업주부와 함께 만들어가는 집 밥 공유플랫폼		
지원 핵심역량	창의성 (●)	전문성 ()	대인관계 ()
	자기관리 역량 ()	정보기술 활용 역량 ()	의사소통 ()
	문제해결 역량 ()	글로벌 역량 ()	

강남대학교 실버산업학과와 경영학을 복수전공하면서 평소 사회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창의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창업공모전 코아시스 동아리를 가입하였고, 제 혼자만의 생각을 실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 및 미취업전업주부(700만 명)는 일하기를 원하지만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자유로운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단순노무직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매년 10만 명에 육박하는 여성이 음식점 창업을 통해 일자리를 찾고 있지만 5년간 생존율은 17.7%에 불과하며, 그로인한 폐업부채는 1인당 약 1,298만원에 달하는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는 1인 가구 증가란 인구 통계적 변화가 불러온 집 밥 니즈를 창의적 사고와 연결하여 하나의 비즈니스로 만든다면, 앞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전업주부의 집 밥을 1인가구들에게 공유하는 집 밥 공유플랫폼_Real Mom이란 아이디어를 착안하였고, 구체화 작업을 통해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비즈니스모델 개략도>



이를 통해 각종 청년 창업리그 및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창출대회 등에서 입상하였고, 모교의 창의성을 널리 알릴 수 있어서 뿌듯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모교의 창의적 가르침과 활동 공간을 제공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강남대학교 8대 핵심역량 중 창의성 실천사례 수기 공모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증빙자료 첨부

1. 아시아타임즈 인터뷰 자료 (사진 첨부)

1. 일자리창출 아이디어 경진대회 및 청년창업리그 입상 (사진 첨부)

나. 자기관리 역량 최우수상

제목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		
지원 핵심역량	창의성 ()	전문성 ()	대인관계 ()
	자기관리 역량 (●)	정보기술 활용 역량 ()	의사소통 ()
	문제해결 역량 ()	글로벌 역량 ()	

1. 머뭇거리지 말고 시작해

처음 대학에 입학해서 다짐했던 것은 “나를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였습니다.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사람 말고 속에서 우러나온 ‘멋’이 있는 사람 말입니다.

그로부터 저는 ‘나’라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목표까지 적은 20대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했고, 차근차근히 버킷리스트를 지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자신감은 커져갔고, 점차 저의 꿈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교내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 놀랍게도 무수히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었고, 우선 저는 참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기준을 아래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 ①리더십을 키울 수 있는 활동
- ②진로를 확고히 잡아갈 수 있는 활동
- ③학업과 관련된 활동

이렇게 큰 틀을 잡고 나니, 어떠한 활동에 관심을 기울이고 참여해야하는지 쉽게 구별할 수 있었고, 관심이 있는 분야이다 보니,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맨 처음에는 교내 ‘비교과 자기설계 로드맵 공모전’에 참여하여 SWOT분석과 대학 4년 동안의 수강계획을 스스로 세워보며 대학생활과 학업계획을 탄탄히 세웠고, 수상이라는 명예까지 얻으며 자신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영어 speaking 실력을 키우기 위해 학우들을 모아 ‘학습공동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매주 영어회화실력을 키워나갔고, 최종목표였던 교내 말하기 중심수업 Academic English에서 A+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목표의 성취로 개인성과지표달성자로서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2. 쓴 좌절의 맛, 그리고 극복

후에도 지속적으로 ‘한국어도우미’, ‘집단 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내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꿈에 가까워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처음 치른 시험,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다보니, ‘낮은 성적’이라는 어려움에 부딪혔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매우 낮은 성적에 좌절감을 느꼈고, 실패했다는 생각에 괴로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때의 암기식의 공부법을 버리고 새롭게 학업계획을 작성하고 공부법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A+받고 교수님의 애제자가 되는 9가지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꾸준하고 성실이 답이다’라는 생각으로 나만의 학업 법칙을 지켜나갔고, 결국 1학년 2학기에는 1학기와는 달리 높은 성적을 받으며 버킷리스트중 하나인 ‘과탐(과 1등) 해보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꿈 많은 나, 세계로 나아가다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소망에서 시작된 저의 꿈은 UNCTAD(UN무역개발회의)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심을 가지며, 해외로 가서 직접 경험하는 일에 흥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내의 ‘멕시코 익투스 글로벌챌린저’라는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활동에 뽑히기 위해서는 직접 활동과 멕시코 학생들을 위한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계획하여 제출해야 했습니다.

저는 멕시코에 남자친구를 둔 언니를 중심으로 포섭하여 팀을 꾸렸고,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며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로 채택되어 관심 있었던 공정무역의 산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공정한 무역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꿈이자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가난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배웠고 저의 꿈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올해 여름방학에 2주간 진행되는 ‘사천대학교 Immersion program’은 3,4학년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세계무역 1위인 중국은,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이자 UN에서 일을 하고자 하는 저는 반드시 탐방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는 구체적인 소개와, 활동계획들을 모아 클리어 파일에 빼곡히 채워 넣어 교수님께 드렸고, 후에 학년이 아직 낮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보아 뽑아주겠다는 합격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누구보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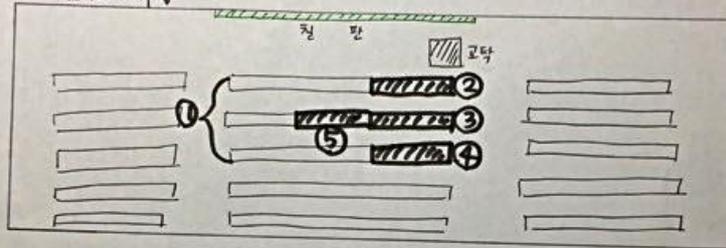
저는 하고자하는 목표를 저학년부터 계획해왔고, 실패를 맛보더라도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생각해서 해결해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목표와 관련된 활동이라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계획하고 실천해 왔기에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고, 그로부터 꿈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의 실천들로 자기관리 역량이 증진되었다고 판단하였고, 사례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A+ 받고, 교수님의 애제자 되는 법

① 맨 앞자리를 사수하라

맨 앞자리에 앉게 되면, 교수님의 눈에 덜 뵈만 아니라 집중도 높아진다. 교수님의 눈치를 봐서라도 덜 출제된다. 목소리가 낮고 작으신 정감은 교수님이라면 더욱 앞에 앉을 것!
 남의 눈치나 질투를 사지 않고도 작은 목소리로 대답하고,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 즉, 앞엔 교수님만 보이므로 교수님과 나의 과외수업이 형성된다.

⊗ 앞자리 Tip



- ① - 무조건 우리가 앉아야 할 위치 (거울가운데)
- ② - 수업에만 오르지 집중하며, 교수님께 질문을 수모 할 수 있고 작은 소리 대답해도 교수님이 캐치할 수 있는 골자리.
- ③, ④ - 교수님과 가장 이이전택 자주할 수 있는 자리. 교수님과 친분을 쌓고 싶다면 이 자리에!
- ④ - 어느정도의 이이전택, 어느정도의 수업집중. 가장 평하게, 그렇지만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자리.
- ⊕ 교수님께서 얼굴을 기억하게 하고 싶다면 항상 같은 자리에 앉을 것

② 교재, 프린트 모두 꼼꼼히 들고다녀라

당연한 말이지만 지게 어렵게도 하다. PPT 수업이라면 앞지말고 미리 프린트 하교, 무거운 전공서적 들고 다녀라. 교수님께서 교재를 한 번 볼까말까 해도 들고다녀라. 이 무거운 책 들고 다니면서 안 볼 것 편히 하나라도 더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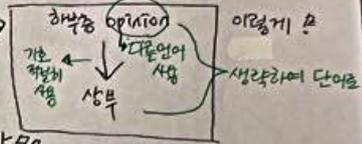
가장 중요한 것! → 전공서적은 무조건 구해라. 정리도 좋다. 시험문제는 서적에서 자주 출제된다. 두껍게도 하고 무겁게도 하지만 우리의 전공서적이다. 하나라도 도움 안 되는 글 없다. 한 번이라도 프린트를 안 꺼져가면 수업내용도 잘 기억이 안나고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니 교재와 프린트 모두 꼼꼼히 들고 다녀라.

③ 교수님의 농담까지 적어라

A+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필기**다. 교수님의 모든 말씀을 적는 것이다. "적자생존"이라는 농담이 있을만큼 적어야 살아남는다. 예쁘게 쓸 필요없다. 나만 알아보고, 나만 이해하면 된다. 오히려 나중에 필기만 베끼려는 못된 친구들도 걱정할 필요없다.

녹음을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결국 안듣는다.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듣기도 어렵다. 무조건 다 적어라. 단, 정말 토사나투리게 적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기**를 생략해서 적어라.

예) "이러 하복중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부에 전달한다" 는 =>



필기 Tip [**기호나 수식**을 잘 활용하라. (화살표, 괄호 등)

비교적 영어가 한글보다 짧거나 적기 쉬운 경우가 많.

(다들 언어로 필기한다면 집중도 UP, 나중에 복습할 때도 지루하지 않다. 언어공부도 더불어 하게 된다.)

교수님의 농담 또한 수업과 관련이 된 것이 많다. 수업내용이 더 잘 떠오르고 다양한 예시를 통해 이해도도 높아진다. 후에 복습할 때 '피식' 웃으며 공부의 부담을 덜 수 있다.

④ 필기는 네가지 색으로 적어라

다섯가지 이상의 색은 혼란만 준다. 깔끔하게 네가지 색을 사용하라. 어떤 색이든 좋다. 자신이 알아볼 수 있는 색으로 "나만의 필기 규칙"을 형성하라. **빨리 모든 것을 적어야 하므로 4색 볼펜을 사용하라.**

나 같은 경우를 예시로 들면,

- 정정색 - 교수님이 필판에 적어주시는 것 / 적으려고 하신 것
- 빨간색 - 교수님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 / 강조하신 것
- 초록색 - 교수님께서 들어주신 예시 / 교수님의 농담
- 파란색 - 위의 세가지 경우를 제외한 모든 말씀.

⑤ 교재는 최소 5번은 읽어라

교재는 많이 읽으면 읽을수록 좋다. 읽다보면 저절로 이해가 되고 인기가 된다.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읽고, 필기를 다 써서 적으면 벌써 3번 그 내용을 본 것이 된다. 거기다 교재를 5번 더 읽으면 **8번 반복한 셈**이 된다.

교재를 몇 번이고 읽다보면, 서술형 문제를 푸는 것은 **완전히 해결**되고 서적에 나온 오타나 실수를 발견하는 재미도 **솔솔**하다. 나보다 더 지식이 많은 학자들도 "실수를 재지른다"는 것에 통쾌해하기도 하고 자신감도 얻을 수 있다.

⑥ 공부가 안 될 때는 과감히 펜을 내려놓아라

한 자리에 앉아 지속적으로 뒹하게 되면 당연히 지치고, 집중도 잘 안 된다. 그럴 때는 펜만 잡고 과로하지 말고 **과감하게 쉬어라**. 잠깐 바깥공기를 쐬어도 좋고, 잠깐 잠을 자도 좋다. 네 머릿도 쉴 시간을 좀 주고 편안한 마음과 상태로 **에너지를 저장하라**.

⑦ 모르면 질문하라

내가 모르면 남도 모른다. 내가 멍청하고, 내만 이해 안 되는 것 같지만 옆에 사람도 어떤 내용인지 몰라 머릿이 돌고 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중당장 일어나 교수님께 질문하라**. 자주 질문하다보면 (이 학생이 열심히 하는 학생이구나) 라고 생각하여 눈여겨보신다. 또 스스로에게도 동기부여가 된다. 이해 못하던 것을 이해하는 **성취의 기쁨**도 얻을 수 있다.

⊗ 질문 Tip

- 질문은 **교재와 함께** 질문하라.
(두꺼운 서적과, 그 안의 평가를 보신 교수님의 눈으로 변해있을 것!)
- 질문은 **구체적으로** 하라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다는 '여기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서 이게 이해가 안돼요'
(→ 어쨌든 내가 충분히 고민했다는 것을 알리게 될 수 있고, 교수님께서 확실한 대답을 주시게 편하다.)

⑧ 스스로 계속 동기부여하라

공부하다보면 힘이 들고 지쳐 '왜 공부를 해야하나' 라는 회의감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 스스로 동기부여 해 내는 수 밖에 없다. 동기부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를 추천한다. 첫 번째, **나의 미래를 그려본다**.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상관없다. 가까운 미래라면 A를 받는 나의 모습, 장학금을 받는 나의 모습 등이 있고 먼 미래라면 좋은 직장에 취업한 나의 모습을 그려 볼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명언이나 좋은 글귀를 읽는 것**이다. 짧고 강하게 동기부여 할 수 있다.

('젊은이여, 그대의 이름을 가지 있게 하라'
'손이 타버릴 듯 뜨거운 자라도 담고 싶은 태양이 있다면 죽어도 놓지 말 것')

⑨ 강의는 시험 후 보강까지 출석하라

시험 후 보강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점수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하더라도 반영한다. **유종의 미를 거둬라**. 물론 결석, 지각 없는 것은 당연한 A+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공문을 제출**해야 하는 행사도 가급적 피하라. **성실함**이 곧 좋은 성적이다.

20대의 "버킷리스트" 야

- ① 부지런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예쁜 몸매 유지
- ② 머리에 염색이나 와마로 색다른 변신하기
- ③ 피부관리하기
- ④ 시댁 수놓하기
- ⑤ 야기 배우기 - 기타!
- ⑥ 한달이상 여행가기
- ⑦ 얼마장 해외여행가기
- ⑧ 한달이상 보러 & 과외해보기
- ⑨ 하루종일 책상에 파묻혀서 책만 읽기
- ⑩ 아주 멋진 나의 20대들상을 카메라사기
- ⑪ 그 이상부터의 추억들 사진앨범 만들기
- ⑫ 피팅해보기
- ⑬ 엄청난 backpack에 짐 싸고 혼자 배낭여행하기
- ⑭ 대학원에서 연구하기 ⊕ 학교 연구동아리 들어가기
- ⑮ 해리포터, 셉템, 트와일라잇 하루 낭독해서 보기
- ⑯ 혼자 영화관 가서 의미있는 영화보기
- ⑰ 다룬언어 배워기 - 불어
- ⑱ 정말 화려한 생일파티 열어보기
- ⑲ 성년의 날에 장미꽃과 함축 받기
- ⑳ 공부는 못해도 성공하기
- ㉑ 멋진 직장에 취직하기
- ㉒ 학교 장학금 받으면서 대세
- ㉓ 매달 최소 5만원씩 저축하기
- ㉔ 영감 받음에 따라 시 쓰기
- ㉕ 한달이상 소설 완성하기
- ㉖ 20대중 위한 자기개발서적 사기. ⊕ 소중한 친구에게 선물
- ㉗ 들도 없는 대학교 친구 만들기
- ㉘ 옷 사는데 돈 왕창 써보기
- ㉙ 한방 date
- ㉚ 은수 + 서프라이즈 선물
- ㉛ 과음후 잠입후 찾아보기
- ㉜ 첫사랑 부모님께 대담하게 드리기 (서 all!)
- ㉝ 부모님 결혼기념일 이벤트
- ㉞ 얼마장 다시 다들 이 부산여행
- ㉟ 영화자막 만들기 (가족이 친구들 보기)
- ㊱ 가족과 해외여행 (계획 및 통역은 내가!)

- ㊲ 윈드 머트 앙상블 재킷구매
- ㊳ 수영 배우기
- ㊴ 해외여행후 찍은 사진 공모전 수상 or 영서로 만들어 판매
- ㊵ 엄마아빠 좋은 데 보내주기 (약) 스파, 마사지샵
- ㊶ 밤 프로젝트 사기 (내방에 설치!)
- ㊷ 재테크, 펀드 관련 책 사기
- ㊸ 유튜브나 블로그 운영해보기
- ㊹ 성당 열심히 다니기
- ㊺ 배낭 채워 한길서문 읽기
- ㊻ 외국인 남자친구 만나보기
- ㊼ 토익 공부 열심히
- ㊽ 가족사진 재밌게 찍기
- ㊾ 혼자 노래방에서 노래부르기
- ㊿ 노래 작사 작곡 해보기
- ① 비오는 날 흠뻑 젖으면서 춤추고 놀기
- ② 문서들기
- ③ ~~원인 명함용 머리카~~
- ④ 20대 후반에는 내만의 차 사기
- ⑤ 나의 진로와 꿈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고 확신을 갖기
- ⑥ 매년 크리스마스 파티 열기
- ⑦ 똑같은날 봉사하기
- ⑧ ~~성형~~
- ⑨ 학교에서 주최하는 김원세업/어학연수/글로벌 캠프원저게
- ⑩ 과외해보기
- ⑪ 무영원원 재킷을 최소 3개 보유하기

Sichuan University Immersion Program

Application Form



목차

1. 성적증명서
2. 국제통상학과 000 입니다.(간략한 소개)
 - 1) 고등학교 관련
 - 2) 대학교 관련
3. 장학금 수상내역
4. 호주교환장학생 경험 증빙자료
 - 1) 사진
 - 2) Overseas Student & Parent Handbook
 - 3) 홈스테이 가족
 - 4) 홈스테이 정보 자료
5.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 1) Who
 - 2) Why
 - 3) How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

1. Who

저의 최종 목표는 UNCTAD(UN무역개발회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막연히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꿈의 시초가 되었고, 학창시절과 지금까지의 다양한 외국인들과의 경험, 그리고 해외방문을 통해 꿈을 다잡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의 장점은 크게 '외국인에 대한 거리낌이 없는 마인드',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진행시키는 능력'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저는 '외국인들과의 거리낌'이 없습니다. 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의 삶을 이해해야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교내 호주 교환 장학생에 도전하였고 점심시간마다 원어민선생님께 찾아가서 말하기와 듣기연습을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교환 장학생에 선발될 수 있었습니다. 호주에서 교환 장학생 생활동안 다양한 경험들로부터 넓은 시야를 가지게 되었고 홈스테이 생활을 하며 실생활의 영어 말하기 실력을 키웠습니다. 학업에서도 매 학기마다 성적이 향상되어 high achievement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복학해서, 영어 말하기 실력과 외국인들과의 교류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해외 교류부 부장님께 부탁을 드려, 기숙사 생활을 하는 동안 영국인 교생 Amelia와 말레이시아 교환학생 Tarnia와 함께 룸메이트 생활을 하며 외국인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또한 경화여고, 경화여자EB고 그리고 경화여중 이렇게 세 학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 '백합제'에서 영어로 사회를 보기도 하고,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마다 1,2반 친구들에게 '홍반장과 함께하는 리얼 토크'영어 말하기 수업을 열어, 예의바른 표현법부터 영국, 미국, 호주의 발음차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초회화를 가르쳤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다보니 저의 부족한 부분이 잘 보였고 그 부분들을 보완하면서 영어말하기 실력이 향상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쌓아 온 저의 영어실력은, 미국 명문 주립대학 KU(Kansas University)에서 온 12명의 교생 선생님들, 교수님과의 만남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학교를 소개하고 한국을 알리는 '학생외교관'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진학하여, 글로벌 라운지에서 진행하는 '한국어 도우미'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온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학교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반복적인 영어대화 학습을 통해 실용문의 중요성을 깨달은 후, 외국인 친구가

한국에서 직접 사용하고 실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는 실용문 중심으로 가르쳐주었고, 마지막에는 한국어 도우미 우수 시상식에서 1등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학습공동체'활동에서 'YOLO(You Only Live Once)'라는 팀명을 영어 Speaking 스테디에서 리더를 맡아 학습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다보니, 저는 외국인들과 전혀 거리낌이나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게 되었고,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을 기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차별 없이 사람을 대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진행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을 통해 배울 수 있거나, 저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에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참여해왔지만 매우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다양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났고, 저는 저에게 맞는 활동들을 찾아, 최대한 학업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 후, 가장 좋았던 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학생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고 무한한 가능성을 뽐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입니다. 학업에도 집중하여 높은 성적을 이루어 내고 있으며, 제가 발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는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에서도 진지하고 진심으로 임하면 늘 좋은 성과를 거두어 왔고, 수상하지 못하더라도 성장하는 저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켜서, 혹은 급작스럽게 떠밀려서가 아닌, 스스로 할 수 있는 찾고 좋은 결과를 이루어서 훗날 저의 목표와 꿈을 이루어내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살아감에 있어 자기주도적인 저의 장점은 빛을 발할 것이라 믿습니다.

2. Why

사천대학교는 중국역사 문화인 성 도시에 위치하며, 교육부 직속의 중점대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중국 및 서부지역에서 교육 및 사회 각 방면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종합대학입니다.¹⁾ 현재 세계 GDP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인 중국의 명문대학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을 경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12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상품 수출입 총액은 3조7천억 달러(약 4천177조원)로, 중국의 수출입 총액인 3조6천800억 달러를 앞질렀다고 닷케이 아시아 리뷰가 보도했다."²⁾ 는 기사로 보아, 현재 미국을 제치고 세계무역 1위가 된 중국은, 무역을 전공하는 학생에게, 그리고 UN에서 일을 하고자하는 목표가 있는 저에게는 반드시 탐방하고 학습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떠한 강점이 이렇게 세계를 이끄는 선도주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나라의 학생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는지 직접 방문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강남대학교에서 더 발전된 국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세우기보다, 경쟁자로부터 배울 것은 배우고, 고쳐야 할 것은 고쳐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무역 분야에서 최강자가 된 중국에서는 무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앞으로 1위 유지전략을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뛰어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사천대학교의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학습하며, 무역을 전공하는 중국인 학생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로부터 한국이 무역 분야에 있어 더욱 발전되려면 어떤 점이 더 개선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강점을 어떻게 부각시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천대학교에서는 한국인 학생회가 있을 만큼 한국인 학생의 수가 많고 학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만나, 중국의 현실적이고 직설적인 실태와 한국과의 교류 상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한국과 가깝고도 먼 중국의 문화와 관습에서도 보고 느끼며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고, 훗날 모든 국가, 사람들을 위해 일하는 UN에 가고자하는 목표가 있는 제가, 꿈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이 사천대학교에서의 기회를 꼭 잡고 싶습니다.

1) 1) <http://www.whychina.co.kr/uni-chengdu-sc.php>, 중국유학사.

2) 2) 김경운, 연합뉴스, 2017/04/13.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13/0200000000AKR20170413145100009.HTML?input=1195m>

3. How

Sichuan Uni' Immersion program을 통해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Academics

Program Highlights

- Study with Sichuan University full-time students
- Mingle opportunity with students from the world-wide
- Easy access to real Chinese life with good living learning environment
 - Broad and diverse range of courses available
 - Field trips to minority areas, world historical,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s(Buddhist, Taoist temples and lovely panda breeding center)
- Countless opportunities to take part in local buddy's cultural experiences and academic events

출처:<https://studyabroad.unm.edu/student-programs/sichuan-university-summer-immersion-program>

- 학문적인 배움

(실질적으로 어떠한 수업이 진행되는 지에 대해 사천대학교 측의 Sichuan Uni' Immersion program 담당자님께 메일을 보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가능한 전공이자 관심분야인 무역학과 수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모두 참여해 보고 싶습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무역에 대해 논하는 수업에 보다 열정적으로 참여하여 세계 무역 1위 국가인 중국의 무역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또한 사천 대학교 학생들과 오랜 시간 수업도 같이 듣고, 대화를 할 기회도 많으니, 무역을 포함하여 한국 그리고 그들이 졸업 후 하고자 하는 사소한 것까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사천대학교는 중국 대륙에서 가장 오래 된 대학 3개 중 하나로, 현재 수많은 외국인 학생들과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³⁾ 따라서 다양한 국가의 학생들과 만나는 기회가 많고,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천대학교에서 있을 토론이나,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 대표가 되어 이끌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하나의 결론으로 취합하는 연습도 해보고 싶습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모든 수업은 제게, 참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를 좋아하고 또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나의 발전을 의미하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하는 의지를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로만 진행되는 수업을 듣는 것이 한국에서는 쉽지 않은 기회입니다. 이로부터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키고, 글로벌 리더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싶습니다.

전반적인 수업을 통해 어떠한 중국만의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무역 강대국을 가능하게 만들었는지 중점적으로 학습을 진행해 볼 계획입니다. 이는 국제적인 관점에서 경영과 무역에 관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사회문화적 경험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모여 함께 공부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입니다. 수업, 외부 활동, 커뮤니티 등 사천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른 학생들과 친해지면서 중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이 언제 어디서든 중국인과의 교류가 가능하고 문화 습득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프로그램은 중국어를 배우고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문화적인 다양한 경험들로 폭넓게 바라보는 시야와, 경영자로서의 자질을 기르는 데 더욱 초점을 두어 문화 전문가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방문할 중국지역의 역사적인 장소와 신전, 그리고 판다를 기르는 센터역시 중국의 문화를 볼 수 있는 경험이 될 것 같아 큰 기대가 됩니다.

3) 사천대학교 홈페이지, <http://global.scu.edu.cn/?channel/63/114/285/1471>.

- 정보 전달의 역할

저는 올해 1월부터, Ellie's Dream On이라는 블로그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에는 훗날 뷰티 수출에도 관심이 있어, 뷰티제품들에 대한 후기와 제가 하는 다양한 대외활동에 대한 글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사천대학교에 가게 된다면, 제가 경험할 값진 경험들과 사천대학교에서의 학습을 통해 발전되어가는 저에 대한 내용과 정보를 알리는 정보 전달의 역할을 해볼 계획입니다. 사실상 이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어떠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다음 지원할 학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강남대학교에 '저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구나.' 할 수 있도록, 사천대학교의 프로그램 및 경험에 대한 내용들과 저의 일상을 기록하여 양질의 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사천대학교에서 경험할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저를 더욱 성장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새로운 학업, 만남 그리고 기회를 앞에 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자기소개서 및 학업 계획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4) 엘리의 드림온, 블로그, http://blog.naver.com/go_hjy0309.

다. 문제해결 역량 최우수상

제목	꿀찌에서 탈출하기.		
지원 핵심역량	창의성 ()	전문성 ()	대인관계 ()
	자기관리 역량 ()	정보기술 활용 역량 ()	의사소통 ()
	문제해결 역량 (●)	글로벌 역량 ()	

저는 동부 문화 재단에서 주최하고 동부 인재 개발원에서 주관한 제 3회 대학생 기업경영 캠프에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캠프는 2016년 6. 27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었고, 대학생들의 기업 경영 프로세스를 자세히 이해하고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키기 위해 진행된 캠프였습니다. 이 때 당시 저는 전역한지 약 4개월 차에 접어들었고, 2학기 복학을 목전에 두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싶어 지원을 하였고 자기소개서 및 지원 동기 제출을 통해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문제해결 역량은 이 캠프의 중요한 활동이었던 기업 설립 및 경영 활동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 기업 경영 활동은 전국 각지의 대학교에서 모여든 많은 대학생들이 각각 3인 1조로 팀을 꾸리고, 각자 주어진 노트북 내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상의 기업을 설립하고, 다른 조들과 경쟁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와 동덕여대에 재학중인 2명의 여학생과 한 조가 되어 다른 11개의 팀들과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의 운영방식은 간단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주요 자원 생산국인 미국, 중국, 호주, 러시아 등을 자원 수출국으로, 그리고 자원 수출국으로부터 수입한 자원을 국내 공장과 노동력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만든 제품을 일본, 이집트, 영국 등의 국가에 판매권을 파견하여, 판매를 하는 등 총 12개의 팀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조가 우승을 하는 형식이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첫째, 수출국은 판매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조에게 판매하는 경매 방식을 차용한다. 둘째, 수출국은 동일한 자원을 판매하는 대신 각각의 자원의 가격은 제각각 다르다’ 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주의할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각 12개의 조는 서로의 눈치를 보며 최대한 낮은 금액을 제시하여 많은 양의 자원을 구매하고, 이를 각 조가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생산력과 생산 인력, 판매 인력을 잘 조율하여 높은 수익을 얻어야 하는 것이 쟁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분석 끝에 저희 조는 우선 생산 전략을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업을 설립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초 자본이 2억으로 설정 되어 있었으며, 시장 조사 및 국내에서의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던 만큼 전반적인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우선 적절한 양의 자원 매입과 기계구입, 생산 및 판매 인력의 고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정화를 꾀하기 위한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시장 조사라는 명목 하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금씩 구매하고 있는 사이에 다른 몇몇의 팀들은 가격을 중간 정도로만 맞추고 가능한 모든 자원과 인력들을 구매한 후 생산하여 다시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등 빠른 순환을 통해 큰 수익을 올리는 성과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희 조도 심각성을 깨닫고 재빠르게 다른 조의 방법을 따라하였지만, 이는 역부족이었고 결국 저희 조는 끝씨를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 조의 조장이었던 저는 약 4~50명의 참가자들 앞에서 끝씨를 하게 된 위와 같은 이유를 설명해야 했고, 변명 아닌 변명 발표를 끝으로 기업 1년 차 경영 활동은 끝이 났습니다. 저는 단순한 경영 활동 프로그램에서 끝씨를 한 것과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에 대한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은 것에 조원들에 대한 미안함, 창피함 등이 한꺼번에 몰려왔고 다음 날에 있을 2년차 경영 활동 준비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우선, 저희 조는 재화로는 2억의 빚을 가지고 있었지만 늦게나마 대량으로 구입했던 자원들이 풍부하게 있었고, 이를 뒷받침해줄 생산 기계와 노동력이 뒷받침 되어 있던 상태였고, 다른 조들은 이미 자원을 상품화하여 기본 자산이 약 3억 정도 있던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저는 박리다매(薄利多賣), 즉 상품가격을 저가로 하여 대량판매해서 이익을 보는 전략을 고안해 내었고 바로 실행에 돌입하였습니다. 다른 조들은 계속해서 낮은 가격에 많은 자원을 구매, 가능한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방법을 고수하는 대신 안정화를 꾀하기 위해 큰 활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저희는 평균치 가격으로 대량으로 구매하여 낮은 가격으로 대량 판매하는 방식을 초반부터 끝까지 유지하였고 마지막 기업 활동이 끝날 무렵 저희는 흑자 전환 및 자원 및 재고 완전 소진이라는 결과를 맛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박리다매라는 방식이 큰 수익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수익적인 측면에서는 전체 12조 중 4위를 달성했으나 판매량 순위에서는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눈 여겨 보신 강사님에 의해 저는 다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가 시도했던 새로운 전략과 끝씨에서의 탈출기를 발표하게 되었고 박수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상의 프로그램에서 활동이라는 점이 아쉬움을 남겼지만, 국내 여러 학교의 대학생들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눈 깜짝할 새에 닥친 최악의 상황에서 저의 리더십과 조원들과의 협동을 통해 지혜를 발휘하여 짧은 시간에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8개의 핵심 역량 중 문제 해결 역량이 실천 되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증빙 자료 1. (제 3회 대학생 기업 경영 캠프 수료증_사진첨부)

증빙 자료 2. (제 3회 대학생 기업 경영 캠프 일정표)

	DAY 1	DAY 2	DAY 3
		[DVMP] Round 1 기초경쟁 • 아이디어 분담 • 경영활동과 재무제표의 이해	[영사특강 2] 실전! 프레젠테이션 스킬 Follow Up! - 경영성과 분석 및 공유
		중식	
금융센터 설명 이틀 (금융이터-인차점)		[DVMP] Round 2 계획경쟁 • 재정성이 포인트 • 손익분기점 이해	Follow Up! - 경영성과 분석 및 공유
오리엔테이션			수료식
[영사특강 1] 기업경영과 기업가정신		Follow Up! - 경영성과 분석 및 공유	이틀 (인차점-금융센터)
석식			
START UP! 가맹점탐		Happy Together-! 준호 및 화합의 시간	

라. 전문성 최우수상

제목	‘한국어교육학 수업’을 발전시켜 영어 멘토링을 진행하다!		
지원 핵심역량	창의성 ()	전문성 (●)	대인관계 ()
	자기관리 역량 ()	정보기술 활용 역량 ()	의사소통 ()
	문제해결 역량 ()	글로벌 역량 ()	

저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국어국문학과라는 전공을 살려서, 교육자를 꿈꾸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연 교수님의 ‘한국어교육학’ 수업을 욕심내어 들었습니다. 수업의 주된 내용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국어를 하나도 모르는 외국인에게 어떤 식으로 교육 해야하는지, 교육자의 말투와 태도는 어때야하는지 등을 공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았던 부분은 ‘암기 파트’와 ‘문법 파트’였습니다. 청소년 시절 영어 단어 암기는 고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수업을 통해 어휘를 제시할 때 실물이나, 동작, 그림을 보여주는 방법, 문맥을 제시하는 방법, 모국어의 번역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일정하게 여러번 간격을 두고 외우게 해야하며, 스스로 회상하게 하는 방법이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았습니다. 한편 문법을 가르칠 때는 사용 빈도와 복잡도를 고려해야하며, 학습자의 난이도를 중요시여겨야 함을 배웠습니다. 한편 수업 막바지에 ‘강남대 외국인 한국어 교육원’에 방문하여 실제 수업을 참관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의 자세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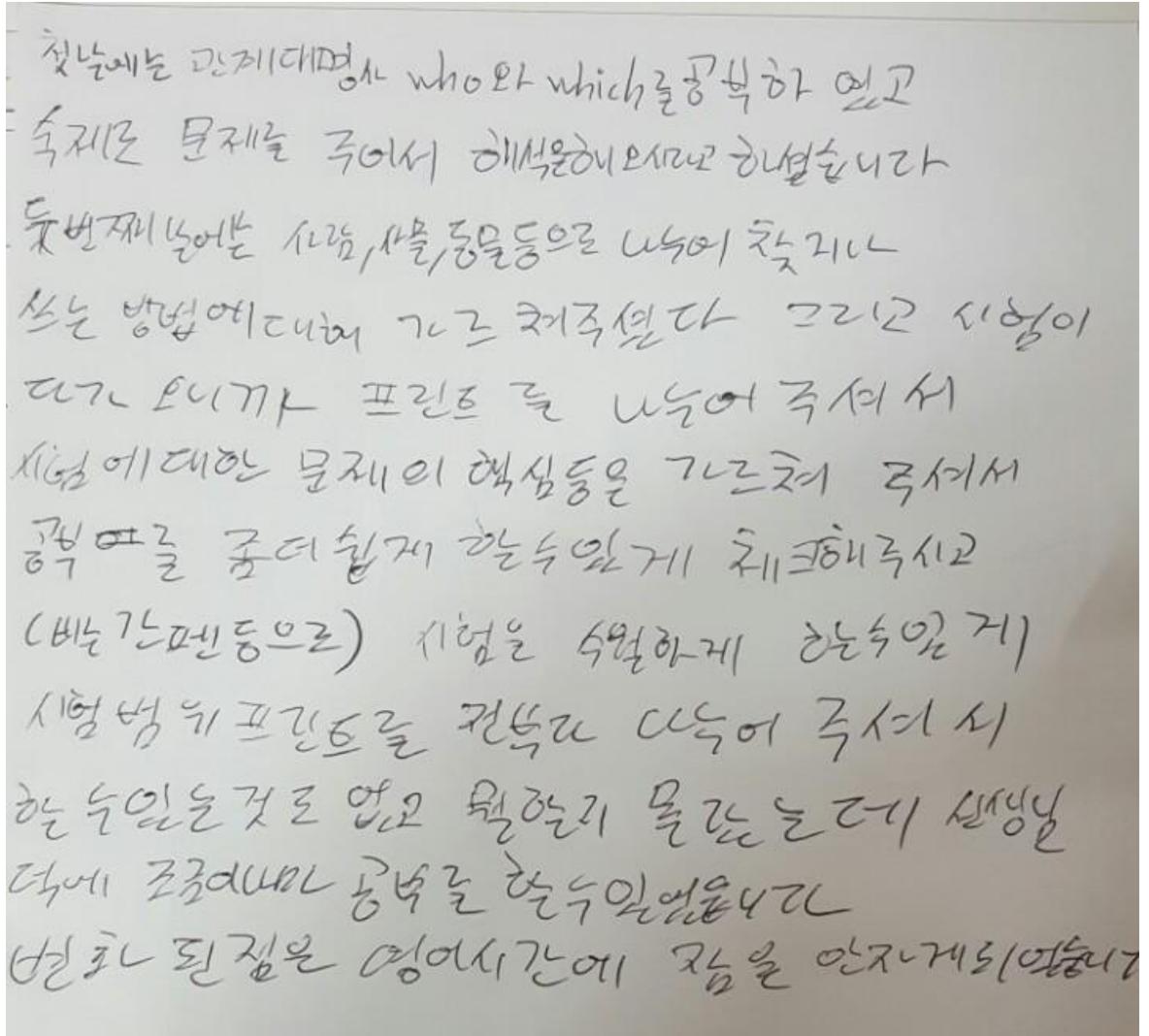
‘한국어교육학’ 시간에 배운 것들을 적용시켜보고, 실제로 가르쳐보고 싶다는 생각에 교육봉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때즈음 제 모교에서 후배들을 위한 대학생 멘토를 구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지원하게 되었고 감사하게도 5명의 후배들을 가르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제가 가르쳐야하는 과목이 영어라는 점과 제가 맡은 반의 수준이 낮은 점이었습니다. 저는 수 많은 고민 끝에 ‘한국어교육학’에서 배운 것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영어에 대한 기초가 없던 아이들에게 처음부터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어 암기 숙제를 내주고, 시험을 보는 방식에서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했습니다. 그저 시험을 보기보다는 단어 게임을 유도 했습니다. 그림과 단어를 매치시키게 했고, 스스로 되짚어 보는 시간을 줬습니다. 한번에 많은 단어를 주지 않았습니다. 최대 15개 내에서 줘서 아이들에게 부담을 덜어줬습니다. 부담이 덜어지니 아이들이 확실히 능동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문법 수업에서도 제 배움을 다양하게 응용했습니다. 한 수업에 하나의 문법을 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의 수준을 고려하고, 학교 문법의 흐름을 파악하여 중요도를 정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문법에서 중요한 것들 중에서 간단한 문법을 나아갔습니다. 문법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응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문제지를 만들어 갔습니다. 이 또한 ‘한국어교육학’ 수업에서 배운 것을 적용시킨 것 입니다. 5명의 아이들은 간단한 문법 구문부터 관계대명사, 동명사까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산만하고 집중하는 시간이 짧았습니다. 그래서 참관수업을 통해 배웠던 말투를 따라해봤습니다. 학생을 정확히 지칭해서 문제 풀이를 시키고, 후에 다같이 반복해보는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불리는 일을 부끄러워하던 아이들이 점점 자신감을 찾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교육학’ 수업을 안들었다면, 멘토링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수업을 통해 배웠던 많은 점들을 통해서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능력을 의심하며 실전에 이용한 점이 제게 큰 경험이 된 것 같습니다. 이론과 실제의 차이를 몸소 느끼된 경험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배운 학문에 색다름을 접목시켜 활용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배울 것도 많고, 교육과 관련된 활동을 더 참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된 경험이니 만큼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사진

멘토링 수업이 끝난 뒤, 아이들이 쓴 후기입니다. 항상 제게 자극이 되는 글이어서 덧붙여 봅니다.



첫날에는 관계대명사 who와 which를 공부하 였고
숙제인 문제를 주어서 해석문제이므로 해석합니다
두번째날에는 시범, 사물, 중음 등으로 나누어 주셨지만
쓰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시험이
다기 전에 프린트 를 나누어 주셔서
시험에 대한 문제의 핵심등을 가르쳐 주셔서
공부 할 줄 좀더 쉽게 할수있게 체크해주시고
(비는 가는펜 등으로) 시험은 수월하게 할수있게
시험범위 프린트를 전부를 나누어 주셔서
할수있는것로 알고 뭐든지 몰랐는게 선생님
에게 조금이나마 공부를 할수있게 해주신
변화 된질은 영이시간에 도움을 안지내도(영이)

첫날에는 수업 진행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수업을 했는데 저희가 안 어렵고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시는 선생님의 모습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업으로는 who/which 를 공부했는데 해석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해석을 해서 이해가 쉽고 적어놓은 것이 다음에 공부할 때에도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다음 수업에는 (주격, 목적격, 소유격), (사격, 사물, 동물) 를 나누어 찾는 방법, 쓰는 방법이 대해 배웠습니다. 선생님께서 따로 프린트도 뽑아 와주시고 시험기간에는 직접 정리를 해주신 비법노트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셔서 시험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수업을 열심히 해주셔서 저희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모든 수업이 끝난 후 작성 예정)

내가 대학생멘토링을 통해 배운 점? 변화된 점?

영양 잘 가르쳐 주셔서 모의고사 내용 (내신) 을 정리하거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 영어에 관심이 많지만 문법, 어휘 어휘는 어려워했는데 차라리 내신 내용을 알려주시어서 수업시간에도 정리를 잘 이해할 수 있었고 이 기리를 통해 영어성적도 더 올리고 문법을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날카롭게 되어서 더 공부할 것 예정입니다. 영어 멘토링을 통해 정말

마. 정보기술 활용 역량 최우수상

제목	비전공자가 제 4차 산업에 대비하기		
지원 핵심역량	창의성 ()	전문성 ()	대인관계 ()
	자기관리 역량 ()	정보기술 활용 역량 (O)	의사소통 ()
	문제해결 역량 ()	글로벌 역량 ()	

“경영학과 학생이 컴퓨터 언어를 통해 정보기술서비스를 개발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서비스를 기획하고 시장을 분석하며 마케팅을 하는 방법을 분석하고 실행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와 연결성이 극대화되는 “제4차 혁명”을 기다리며 IT(정보기술)를 공부하는 경영학과 학생이 있습니다.

시대가 변화하면서 정보통신기술의 중요성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물리적, 생물학적, 디지털적 세계를 Big Data에 따라서 통합시키고 경제 및 산업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신기술을 통해 제4차 혁명이 일어나는 이 시대에 저는 정보기술 활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 사용하는 스마트워치, VR(가상현실)과 IOT(사물 인터넷) 등을 보며 저는 Big Data와 AI 등 빠르게 변화되고 지속해서 생성되는 Data들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경영학과 학생으로서 혼자 공부하기 힘든 부분이었으며 주변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 및 공간 등 제약조건이 많았습니다.

저에게 학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학교에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학습공동체’, ‘겨울방학 튜터링’과 ‘비교과 공모전 대상’ 등을 수상하며 학교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역량을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학교 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마음으로 컴퓨터공학 학우들 사이에 꺼서 학습공동체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非공대계 학생이 공대 공부를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공대학생들 사이에서 공부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고 무섭게 느껴질 것입니다. 독학으로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공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는 것과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있는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은 학습공동체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Big Data를 관리하고 현재 대두되는 언어이며 미국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를 학습공동체를 통해 Python을 처음으로 학습하게 되었습니다. Python을 공부하기 전에 C언어와 JAVA에 대해 공부를 했었지만, 문법이 달라 고생을 조금 했습니다. 또한, 학습의 목표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Data를 내가 관리해보자”라는 목표였으며 현재는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학습공동체 친구들과 공부를 하다 보니 빠르게 습득하고 모르는 것을 바로 물어보며 문제 해결 역량 등이 항상 의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표를 이루고 두 번째 목표인 “AI와 친해지자”로 Deep Learning(딥러닝) 기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딥러닝 기술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는 ‘알파고’처럼 기계가 학습하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공학 학우들도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저도 많은 어려움을 얻고 있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공부하고 머신 러닝을 배우며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정보기술 역량 향상을 위해 새롭게 변화되는 시대에 발맞추어 성장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재가 될 수 있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을 통해 저에게는 날카로운 이빨이 생겼습니다. 정보기술 활용분야에서 저 보다 뛰어난 경영학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앞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며 제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바. 글로벌 역량 최우수상

제목	우물 밖의 개구리		
지원 핵심역량	창의성 ()	전문성 ()	대인관계 ()
	자기관리 역량 ()	정보기술 활용 역량 ()	의사소통 ()
	문제해결 역량 ()	글로벌 역량 (●)	

지난 여름 방학 때 지도교수님의 추천으로 KOICA를 통해 한국에 오신 요르단 특수학교 선생님의 컴퓨터 수업 통역과 한국에서의 생활을 도와드렸습니다. 요르단 선생님과 매일 같이 지내면서 요르단의 문화와 특수교육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 나라의 특수교육을 현장에 직접 가서 경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은 나라 지역과 문화 특성 상 가고 싶다고 혼자서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요르단에 대한 마음만을 갖고 있던 중 교내 ‘동계 국제화 역량지원 학과공모제’가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되었고 특수교육과 학생들과 같이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팀원끼리 서로를 잘 알지 못했지만 저희는 ‘요르단의 특수교육을 경험해보고 싶다’는 비전 하나로 팀을 구성하게 되었고 공모전에 선정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많은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저희는 2016학년도 동계 국제화 역량지원 학과공모전에 선발됨으로써 2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요르단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에서 이슬람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들의 생활양식을 알아가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요르단을 가기 전 충분한 사전조사와 한국에서 요르단 유학생을 만나 인터뷰를 하고 요르단 선생님과 메일을 주고 받으며 요르단에 대해 조사한 것이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기 위해서는 그 나라에 대한 충분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굉장히 와 닿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요르단에서 7박 8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요르단 암만에 위치한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학과를 방문하여 소속 대학생들과의 간담회 및 문화교류 행사를 가졌습니다. 현지 학생들과의 전공과 문화를 교류하며 양국의 문화의 특성을 알고 우리나라의 문화와 교육을 설명하며 제가

다니는 강남대학교 및 학과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이야기 하면서 요르단 대학교와 한국의 대학교 문화와 교육시스템의 차이점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족, 나라와 문화는 다르지만 같은 나이대의 학생으로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현지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르단 문화에 대한 다양성을 경험하고 타문화에 대한 수용 및 존중의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국제사회는 ‘모두를 위한 교육’을 실현하고자 지속적인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초중등특수교육과는 네팔 및 케냐, 미얀마 등의 개발도상국 특수교육지원 사업을 학교 및 학과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었고, 2015년부터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지원 사업인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 PMC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요르단에 방문하여 사업을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기회였고, 요르단 특수학교의 탐방 및 교육활동을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요르단 현지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청각장애 교육 연수에 참관하는 시간을 가지고 양만에 있는 시각장애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현지 특수학교 선생님들을 만나 대화의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듣고 계신 수업을 참관하여 청강하며 요르단의 특수교육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수학교와 기관 현황을 탐색하고 경험하며 요르단 특수교육 관계자들과의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며 그 분들의 열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지원 사업인 요르단 청각장애 특수학교 건립 PMC 사업을 방문하고 소장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의 진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제 전공분야를 국내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제 진로의 다변화 가능성을 모색하여 국외쪽에서 저의 전공을 살리고 싶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요르단을 경험하기 전, 저는 임용고시만을 생각하고 한국에서 꿈을 실현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우물 안에서만 꿈을 키워왔지만 요르단에서 제가 보고 경험한 우물 밖의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크고 넓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물 안에서만 키워왔던 저의 꿈을 ‘동계 국제화 역량지원 학과공모제’를 통해 이제는 우물 밖에서 실현하고자 합니다. 요르단에서의 경험은 제가 특수교육 전공을 살려 졸업 후 나갈 방향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고, 학교의 참인재 양성을 위한 8대역량인 창의성, 전문성, 대인관계, 의사소통, 자기관리역량, 정보기술 활용 역량, 문제해결역량, 글로벌역량도 증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중 글로벌 역량이 가장 증진되었다고 판단하여 이번 사례공모에 응모하게 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동계 국제화역량지원 학과공모제

- 개인 결과 보고서 -



팀 명	We Love Jordan!	학 과	중등특수교육과
파견지역	요르단	학 번	<input type="text"/>
파견기간	2017. 01. 22~31.	성 명	<input type="text"/>

목 차

I. 요르단 사전조사

1. 요르단 기본 정보
2. 요르단 에티켓
3. 요르단 화폐
4. 요르단 생활
5. 요르단 관광지
6. 요르단 관련 지인 인터뷰

II. 요르단 탐방 일정

1. 필요물품
2. 일정계획

III. 요르단 일지보고서

I. 요르단 사전조사

1. 요르단 기본정보



국명	요르단 왕국 (공식국가명 HASHEMITE KINGDOM OF JORDAN)
위치	중동 아라비아 반도 서북쪽 (동쪽 이라크, 서쪽 이스라엘, 남쪽 아라비아, 북쪽 시리아와 각각 접경)
면적	8만 9342km ²
민족	아랍족 98% (인구구성은 대략 요르단계 40%, 팔레스타인60% 차지)
언어	아랍어 (영어도 널리 통용됨)
기후	반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인구	638만 명 (2012년말 요르단 중앙은행 추정치)
수도	암만(Ammam)
국가형태	국왕중심제
정부형태	입헌군주제
의회	양원제
종교	이슬람교(수니파(92%), 기독교(6%), 기타 드루즈 및 시아파(2%))
교육	의무교육 10년을 포함 모든 어린이들에게 공공교육 제공
화폐단위	요르단디나르(Jordan Dinar, JOD),1달러=0.708요르단디나르(고정환율)

2. 요르단 에티켓

- ① 여러 사람을 만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부터 먼저 인사, 왼쪽으로 이동하며 인사를 하는 것이 좋다.
- ② 요르단 사람들은 이야기 주제와 관계없이 그들의 의사소통 스타일이 직설적이다.
- ④ 연장자, 노약자를 위한 시스템이 매우 중요하다. 연장자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 비즈니스 대화가 시작되기 5~10분 정도 개인 대화 시간을 가지게 된다.
- ⑥ 비즈니스 미팅을 시작할 때 선물은 일반적으로 주고받지 않는다.
- ⑦ 요르단 내 대학교 또는 요르단 사회에서 술을 마시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⑧ 발바닥을 보이거나 발을 이용하여 어떠한 것을 움직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것은 몸의 가장 아래쪽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⑨ 공공장소에서 반바지를 입는 것/방향을 표시하기 위해 가운데 손가락을 사용하는 것 술에 취해 있는 것은 무례함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다.
- ⑩ 공공장소에서는 함부로 사진을 찍어서는 안된다.
- ⑪ 현지인들은 친해지면 악수를 한 뒤 볼을 몇 번 맞대는 인사를 하므로 친해진 뒤

현지식 인사를 하면 호감을 줄 수 있다. 이슬람은 인사를 할 때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고개를 숙이는 것은 알라에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 ⑫ 식사 자리에 남자들이 함께하는 경우는 많으나 여자들은 동석하지 않는 것이 현지 관습이므로 여성 동석 권유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 ⑬ 자부심이 강하므로 험담은 피하고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좋다.
- ⑭ 이슬람 전통 복장을 한 여성을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뵈히 쳐다봐서는 안된다.
- ⑮ 다른 사람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뒷통수 만지는 것을 삼가야 한다. 또한 어깨를 뒤에서 치면 모욕으로 여긴다.

3. 요르단 화폐



[그림1] 요르단의 화폐

- 50JD: 75,000원-1JD 1500원 기준 (왼쪽 상단 화폐)

가장 큰 단위의 화폐로 한국의 5만원권과 같은 느낌

요르단에서 이 돈을 다른 단위의 화폐로 교환하려면 물건을 사야 얻을 수 있다.

요르단에 있는 은행에서도 자신의 고객이 아니면 돈을 바꾸어 주지 않고 작은 슈퍼들에서는 잘 받지 않는다.

- 20JD: 30,000원-1JD 1500원 기준 (왼쪽 하단 화폐)

50JD 다음으로 단위가 큰 화폐

- 10JD: 15,000원-1JD 1500원 기준 (오른쪽 상단 화폐)

20JD 다음으로 화폐가치가 큰 화폐이다. 활용가치가 큰 화폐이다.

- 1JD: 1500원- 1JD 1500원 기준 (오른쪽 하단 화폐)

1JD는 가장 많이 쓰는 화폐이다. 특히 택시를 탈 때 꼭 챙겨야 하는 화폐이다.

- 5JD: 1500원-1JD 1500원 기준 (오른쪽 사진)

1JD가 너무 많을 때는 5JD로 간편하게 사용가능하다.

- 누스: 750원 (맨 왼쪽 제일 큰 동전)
동전 중에 제일 활용가치가 높은 편이며 한국 돈 500원보다 조금 더 크다.
- 쿼터: 325원 (누스 옆 동전)
- 10끼르쉬: 150원정도 (쿼터 옆)
5끼르쉬: 100원이 채 안된다. (10끼르쉬 옆)

※ 주의사항: 집에 도둑이 들기도 하고 집값을 사기 당하기도 하며, 택시사기는 항상 존재한다. 그냥 길을 지나가는데 이 길을 지나갔으니 돈을 내야 한다는 말도 한다. 관광지를 가면 관광객들을 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으니 절대 대가성 없는 지불은 하지 않는다.

4. 요르단 생활

① 대중교통 편

- 택시는 기본요금인 0.25JD이다. 사기가 많으니 출발 전부터 가격협상을 하고 타야 한다. 처음부터 가격협상을 해도 도착하고 나서 말을 바꾸며 소리지르고, 화를 내고, 돈을 더 요구할 수 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미리 돈을 준비하여 원래 협상 금액만 주고 내리면 된다. 아랍인들이 화를 낸다고 해서 절대 기죽고 무서워하면 더욱 횡포가 심해지니 맞대응 하는 것이 좋다. 사기의 유형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다.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팁으로는...
 - * 택시를 타면서 아랍인사를 아랍인처럼 당당하게 말하고 아랍어를 안다는 것을 기사에게 각인시킨다.
 - * 운전기사가 심하게 말을 걸거나 계속 중얼거린다면 대답하지 않고 바로 "아다다" 또는 "아다드"(미터기)를 보기 - 탑승자에게 말을 계속 걸면서 기계를 조작하여 가격이 두배 이상 뛰게 할 수 있다.
 - * "아다드" 또는 "아다다"를 키지 않고 가격 협상을 하려고 한다면 세우라고 하고 내리는 것이 좋다.
 - * 택시를 타기 전 동전이나 1JD를 준비한다. - 잔돈이 없다며 계속 버티는 운전기사가 있다.
 - *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대략 조사하고 탄다.
- 버스는 3.25JD(약 4천원)이다. 오직 JD로만 받는다. 공항에서는 24시간 운영한다. 노선은 공항에서 - 7서클 - 무잠말 샤말(버스 정류장 이름)입니다. 중간에 차가 많지 않으면 양해를 구하고 세워 달라 하면 세워 줍니다. 무잠말 샤말 - 7서클 - 공항 반대 노선도 똑같은 노선이며 버스 정류장에서는 막차가 밤 11시까지라는데 어떤 때는 운행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다. 배차간격 또한 30분일 때도 있고 1시간일 때도 있다.

② 물가 편

- 요르단 정부의 세금 탓에 저렴한 편은 아니다. 중동 국가 중 유일하게 기름이 없는 나라 중에 하나로 따로 자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땅한 수입원도 없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국민과 외국인을 상대로 세금을 많이 걷는다. 외국 브랜드, 호텔 등 여러 곳에서 세금이 생각 외로 많이 붙는다. 그렇지만 채소, 과일 같은 것들은 정말 저렴하게 구입하여 먹을 수 있다.

③ 쇼핑 편

- 마디지몰: 요르단 대학교에 주로 거주하는 학생들이 자주 가는 몰이다. 1층은 옷, 신발 2층은 까르푸, 만물가게, 기념가게 3층은 식당, 카페 등이 있는데 여기엔 중국 식당도 있다.
- 시티몰: 시티몰 안에는 망고, 자라, 게스, H&M, 스타벅스 등 각종 스포츠 브랜드나 우리가 흔히 아는 브랜드들이 다 들어가 있으며 요르단에서 가장 큰 까르푸가 있다.
- 메카몰: 시티몰 근처에 있으며 거의 모든 샵이 이곳에 있고, 요르단 기념품 가게가 있다.
- 코즈몰: 몰안에 주류샵이 같이 있어 술과 식료품 쇼핑을 같이 할 수 있다. 또한 없는 식재료가 없다. 아랍에서 구하기 힘든 숙주나 두부도 이곳에서 판매하며 사람들이 "코즈모에 없는 것은 요르단에 없는 것이다."라고 한다.
- 타지몰: 명품은 이 몰에 다 몰려있고 가장 깨끗하며 볼거리가 가장 많은 곳이다.
- 삼희몰: 까르푸와 비슷한 곳이며 저렴한 몰 중 하나이다. 다만 접근성이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택시가 없다면 조금 가기 힘들다. 참고로 옆에 텍사스 치킨집이 있는데 한국 치킨과 비슷한 맛이다.

④ 물 편

- 아랍은 기본적으로 물에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정제해서 마셔야 한다. 수돗물을 정제해서 파는 가게도 있는데 굉장히 저렴하다. 그렇지만 생수를 사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생수를 비교할 땐 TDS 성분만 보아라. 성분이 낮을수록 좋은 물이며 최대 200까지가 적정 수준이라고 하였다. 시중에 많은 회사들의 물이 나와 있지만 모든 것이 0%인 '울트라'라는 생수가 가장 좋다고 한다. 까르푸에서도 가장 빨리 매진되는 물이기도 해서 주말에는 다 팔리고 없을 때도 많다. '코카콜라' 브랜드의 물도 괜찮다. 그러나 '사마'라는 브랜드의 물은 사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브랜드에 비해 저렴하지만 TDS가 300이 넘어가며 나중에 탈이 날 수 있다.
- 양치는 생수로 하는 것이 좋다. 석회 같은 불순물이 치아나 잇몸에 끼어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⑤ 화장실 편

- 건물마다 화장실이 있는 한국과 달리, 작은 가게는 화장실이 없고 좋은 건물, 카페를 가야 건물 내에 화장실이 있다. 휴지를 개인적으로 챙기고 들어가야 한다. 다른 사람이 휴지를 챙겨주어 사용하고 나오면 값을 지불하라고 하기 때문이다.

5. 요르단 관광지

<h3>암만</h3>	
	<p>'크나페(Knafeh)'라는 디저트가 유명하다. 면을 잘게 부숴 버터나 크림치즈로 튀긴 후 설탕이나 꿀을 바른 것이다.</p>
	<p>[암만성(Amman Citadel)] 암만 동쪽 중심에 있다. 암만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시타델은 시민들의 휴식처이다. '헤라클레스 신전'이 있는 시타델은 로마 유물이 그대로 남아 있는 고대 유적지다. 떨어져나간 기둥 일부만 봐도 거대한 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돌기둥 옆에 그려져 있는 문양은 기둥 연결 순서를 표시해둔 것이라고 한다.</p>
	<p>'레인보우 스트리트' 한국의 홍대와 같이 개방적이고 젊은이들이 많이 들린다. 밤이 되어도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다.</p>
<h3>마다바</h3>	
	<p>마다바는 요르단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로 유명한 교회들이 있다. 또한 모자이크 지도가 유명하고 도시가 조용하고 여유로운 분위기다.</p>
<h3>느보산</h3>	
	<p>모세가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죽었다는 느보산으로 뷰 포인트에서 날씨가 좋으면 사해가 보이며, 늦봄이 설치되어있다.</p>
<h3>마케루스궁</h3>	
	<p>검은 궁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헤롯왕이 세례요한의 목을 벤 곳이다.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고 올라가는 길이 위험해서 조심해야한다.</p>
<h3>아르논강</h3>	
	<p>과거 모압과 암몬 땅의 경계이며, 아르논 강 골짜기로 물이 모여드는 곳으로 요르단의 주요 수원지이고, 현재 강 상류에는 댐이 있다.</p>



와디 럼



가장 아름다운 붉은 사막으로 유명한 곳이다. 사막에서 보드 타기는 색다른 경험을 준다. 올라오는 것은 굉장히 힘들지만 내려가는 것은 굉장히 즐겁다.

페트라



기원전 6세기에 아랍계 민족인 나바테아인이 건설한 고대 산악 도시다. 입구를 들어서면서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을 준다. 낮은 곳은 가난한 나바테아인이, 높은 곳은 부유한 나바테아인이 살았다고 한다. 높은 곳은 신성하고 깨끗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페트라 협곡]

영화 '인다야나 존스'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다. 붉은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장밋빛 붉은 도시라고 불린다.

[알카즈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있는 알 카즈네는 바위 절벽 자체를 정교하게 다듬고 깎아서 만든 세기의 예술품이다.

[와디 바다르]

알카즈네를 지나면 거대한 석상을 만나게 된다.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있는데 나바테아인이 돌을 파서 만든 무덤과 주거지라고 한다. 죽음이후의 삶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한 것 때문일지도 모른다.

[페트라 정상]

일몰과 페트라 장관을 보기 좋은 정상이 있다.

베다니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마을로 예수의 친구들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집이 있던 곳이다.

사해

이스라엘과 요르단에 걸친 염호로 해수의 200%의 염분을 가지고 있다.



마인온천



마인온천은 폭포를 취한 형태의 온천으로 황염이 다량 함유되어 피부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약 2천년 전 예수 당시 헤롯왕이 피부병 치료차 자주 목욕을 즐긴 곳으로 알려져있다.

6. 요르단 관련 지인 인터뷰

인터뷰이: 000

인터뷰어: 000

인터뷰 날짜: 2017년 1월 10일 화요일

1)자기소개

-안녕하세요, 저는 요르단에서 2년 정도 유학생생활을 했던 현재 중등학교 3학년 재학생인 000이라고 합니다. 요르단에서 1년의 어학연수와 1년의 코트라 인턴과 코이카에서 현직코디네이터를 했습니다.

2)본인이 경험한 요르단

-요르단은 사람들이 참 정이 많고 인내심이 필요한나라입니다. "인샤할라" 신의 뜻대로라는 말처럼 모든지 기다릴 줄 아는 생활을 해야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족같이 친밀하게 대해주고 아랍국가들 중에서 전쟁이 나지 않은 국가는 요르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난민들이 많이 밀집되어있고 빈부격차가 크고 취업난도 심각합니다.

3)요르단 여행 시 주의해야 할 점

-다른 해외여행과 똑같이 밤에 다니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요르단은 이슬람 무슬림국가이기 때문에 여자들이 밤에 안 다니는 문화예요. 11시전에는 무조건 집에 들어가야 하고 IS 때문에 길을 걸어 다니면서 주의를 의식해야합니다. 사람들이 동양인을 낮게 보는 경우가 있고 특히 여자들의 경우 성희롱을 조심해야해요. 또한 기브앤테이크 문화라는 점을 항상 염두해두어야 합니다.

4)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추천

-와디럼: 영화 '마션'에 나온 관광지-밤에 별이 쏟아진다. 사막에 있는 텐트 안에서 자면 치킨을 제공해준다. 하지만 납치를 조심해야한다.

-페트라: 성경에 있는 호리족속이 산 장소라고 알려져 있다. 사막가가 발견한 장소이며 암벽을 깎아서 성전처럼 지었다.

5) 요르단의 의식주생활

- 식품류가 싸요, 예를 들면 빵10개에 천원정도에요.

옷이나 치약 칫솔 생필품은 한국이랑 가격이 비슷하지만 생필품은 비쌉니다.

아파트생활이 아니고 대리석으로 된 빌라이기 때문에 실내가 춥고 건조해요. 햇빛이 강해서 빨래가 잘 마르고, 날씨는 한국이랑 비슷해요. 사계절이 분명해요.

6) 간단한 아랍어 자기소개

자기소개(여성)

안녕하세요. 저는 - 입니다. 강남대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구요. 여러분을 만나게 되서 기쁩니다. 여기서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알아말 학교를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앗쌀라무 알레이쿰. 이쓰미 - 입니다. 아나 딸리바 피 좌미아 강남. 아나 마쓰루라 비리까이쿰. 아나 훈 민 쿠리야 리 무샤-피라 와 무샤-히드 마드라싸 알 아말 리 돌라비 슝 와 케이파 타을림 우르두니 라흠. 슈크란

II. 요르단 탐방일정

1. 요르단 필요물품

출발 전 준비

✓ 필수품

여권, 현금 (환전), 작은 배낭, 필기구, 카메라, 충전기, 우산, 여권사본, E티켓

✓ 의복

- 현재 암만 날씨는 평균 최저 0도 ~ 최고 10도의 기온
- 대다수의 중동 국가들의 경우 '난방'이 제대로 설비되어 있지 않아 우리나라보다는 덜 추워도 보통 등급의 숙소를 묵다 보면 '좀 으슬으슬한 추위'를 느끼기도 함

외투: 상의, 하의, 양말, 속옷, 모자, 히트텍 (내의), 수면양말, 수면바지, 후리스, 선글라스

✓ 세면도구

세면용 비누, 수건, 화장품, 선크림, 여성위생용품

✓ 개인준비물품

일회용 마스크, 돼지코, 실내 슬리퍼, 개인 상비약, 휴대용 물통(텀블러), 보온병
옷걸이, 핫팩, 손난로

✓ **공동준비물품**

멀티탭, 물티슈, 여행용 티슈

현지구매

까르푸 - 생수, 샴푸, 세탁용 비누, 유심카드 (7g=약20JD)

여행시 유의사항

- 드라이기는 호텔에 비치
- 비자, 여권 늘 소지하기 (여권 사본, 항공 e-티켓 출력)
- 차 요금 타는 시간, 내린 시간 정확히 적어놓고 마지막에 정산
- 외국인, 여자를 경시하는 문화가 있음
- 공산품이 다소 비싼 편, 대부분 수입제품을 사용

2. 일정 계획

순차	일자(요일)	활동 세부 운영 안내	비고
1일차	2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출발(1/22) ▶ 암만공항 도착 23일 11:55am ▶ 숙소이동 및 현지적응 	-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 부부 입국
2일차	24(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연수장 견학 ▶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들 만남 - 레인보우 스트리트에서 점심식사 - 요르단 대학교 방문 - 요르단 대학교 학생들과 학과 교류 및 소개 	
3일차	25(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문화탐방 i - 25일: 암만 → 마다바 → 느보산 → 마케루스 궁 → 아르논 강 → 쇼박성 → 게스트 하우스 	-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 부부와 함께 관광
4일차	26(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6일: 페트라 → 와디 럼 → 암만 	- 아랍 가이드 동행(영어 가능) - 페트라 숙박(1일)
5일차	27(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한인교회 예배 및 점심식사 ▶ 요르단 마트와 레인보우 스트리트 방문 - 요르단 마트에서 기념품과 생활품 구입 - 레인보우 스트리트에서 저녁식사 	-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님 부부와 저녁식사
6일차	28(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문화탐방 ii - 암만 → 제라쉬 → 베다니 → 사해 → 마인 온천 → 암만 	- 아랍 가이드 동행(영어 가능) - 여벌 옷 준비
7일차	29(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연수수료식 참석 ▶ 요르단 전통음식 시식 ▶ 요르단 KOICA 소장님 간담회 ▶ 여행사 사장님과 저녁식사 	
8일차	3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르단 문화탐방 iii - 암만 → 암만성(시타 델) → 암만 ▶ 암만공항 출발 	- 요르단 대학교 학생들과 동행
9일차	31(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도착 	

Ⅲ. 요르단 일지보고서

2016년 1월 23일(1일차)		날씨 : 맑음
오늘의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공항 출발(1/22) ▶ 암만공항 도착 23일 11:55am ▶ 숙소이동 및 현지적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부다비 공항 경유게이트(사진첨부) 	
느낌 및 감상		
<p>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요르단에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긴 비행시간이었지만 다행히 밤비행기였기 때문에 비행기에 타자마자 잠을 자며 시간을 빨리 보낼 수 있었다. 경유지 아부다비에 내려 요르단에 관한 영상들을 더 찾아보며 대기 시간을 보냈다. 요르단에서 특수교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코이카에서 하필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선택했고 요르단에서 청각특수학교건축을 컨펌했는지 우리 강남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어떠한 연수를 하고 계신지에 대한 호기심으로 요르단에 도착하였다.</p> <p>요르단에 도착하여 긴장된 마음으로 미리 구입한 비자를 통하여 입국심사를 마치고 공항에서 환전을 하였다. 공항에서 심카드를 구입하여 핸드폰 인터넷 설정을 하고 우리를 마중 나오신 드라이버를 통하여 호텔에 왔다. 호텔에 도착하여 특수교육 세미나에 오신 한국 선생님들과 같이 식사를 먹으며 궁금한 것을 여쭙어 보았다. 20일 동안 요르단을 먼저 경험하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며 요르단에 대한 기대감과 긴장감이 커져만 갔다. 선생님들과의 점심식사가 늦어져서(요르단의 겨울은 해가 빨리 저문다) 어디를 가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 하에 호텔 주변을 돌아다니며 풍경들과 건물들을 눈에 담았다. 요르단의 풍경은 꼭 합성 그림 같아서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저녁식사 후 교수님과 요르단에서의 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일정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의 있을 일정에 대한 준비물들과 선물들을 포장하며 하루를 마무리 하였다. 첫 날, 막상 요르단에 도착하고 하루를 지내보니 요르단 사전조사와 준비를 하면서 가졌던 요르단에 대한 불안함과 긴장감이 사라져갔다.</p>		

2016년 1월 24일(2일차)

날씨 : 맑음

오늘의 일정

- ▶ KOICA 연수장 견학
- ▶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학과 재학생들 만남
 - 레인보우 스트리트에서 점심식사
 - 요르단 대학교 방문
 - 요르단 대학교 학생들과 학과 교류 및 소개

- ▶ KOICA 연수 청강(사진첨부)

느낌 및 감상

강남대학교와 코이카가 연계한 요르단 청각장애학교 설립을 위해 요르단 현지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청각장애 교육 연수에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 암만에 있는 시각장애 학교를 방문하여 요르단 선생님들을 만나 간단하게 이야기 한 후 학생들 나이별로 나누어진 수업들을 잠시나마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한국어, 아랍어, 수화까지 여러번의 통역이 진행되는 연수였지만 요르단 현지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수업에 대한 열정을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또한 요르단까지 와서 청각장애와 관련된 연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신 한국 교수님들께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시각장애 학교 교장선생님과 요르단 교육부 특수교육 과장님과의 대화 시간을 가지며 요르단의 특수교육에 대해 듣고 질의응답이 시간을 가졌다. 요르단은 친인척 결혼이 허용되어 유전자 문제로 인해 장애 발생률이 굉장히 높고 특수교사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우리에게 농담반, 진담반으로 요르단에 특수학교교사로서 오는 것을 권유하셨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특수교사로 가졌던 꿈을 한국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요르단으로 더 넓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후에는 요르단 대학교 한국어학과에 재학 중인 졸업한 요르단 학생들을 만나 서로의 대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개인적인 이야기까지 나누었다. 요르단의 대학교 시스템과 한국의 대학교 시스템의 차이점은 굉장히 흥미로웠고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은 나이대의 학생으로 많은 공감을 가졌다. 어떻게 보면 이들에게는 우리들과의 만남이 귀찮고 힘들었을텐데 만남의 시간동안 친절하게 자신의 학교를 구경시켜주기도 하고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우리가 호텔로 돌아가는 길까지 안전하게 안내해주었다. 그 나라에 대한 인상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요르단 학생들과의 만남을 통해 요르단에 대한 첫 인상이 좋게 자리 잡으며 앞으로의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

2016년 1월 25일(3일차)

날씨 : 맑음

오늘의 일정

▶ 요르단 문화탐방 i

- 25일: 암만 → 마다바 → 느보산 → 마케루스 궁 → 아르논 강 → 쇼박성 → 게스트 하우스
- 26일: 페트라 → 와디 럼 → 암만

느낌 및 감상

이른 새벽부터 먼 길을 떠나기 위해 서둘렀다. 현지가이드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요르단의 문화에 대해 더 자세하게 배울 수 있었다. 여러 곳을 보면서 제일 와닿았던 곳은 느보산과 마케루스 궁이었다. 성경에서만 접했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세와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외치며 헤롯 왕에 의해 머리가 잘리는 죽음을 맞이했던 세례 요한. 크리스천인 나에게는 더 크게 와닿았다. 느보산에서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했지만 내가 모세가 아닌 이상 모세의 슬픔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었다. 모세는 어떠한 마음으로 죽음을 받아들였을까. 40년간 이집트 탈출집단의 리더였던 모세는 젓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전에 두고 죽는다. 그는 광야 40년동안 온갖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마침내 이 곳 요르단 느보산까지 민족들을 이끌고 왔다. 하지만 지휘권을 여호수아에게 넘기고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느보산에서 밑을 바라보며 꿈꿔왔던 특수교육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었지만 이에 절망하지 않고 리더였던 모세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와 같이 특수교사는 아이들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사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구세주라 생각했지만 사람들의 인기와 상관없이 자신이 구세주가 아님을 밝히고 광야의 외치는 소리로 죽어갔던 세례 요한이 목을 내 놓았던 곳... 내가 그들이었다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죽을 수 있었을까. 또한 자연을 바라보면서 지금의 어떠한 과학과 기술으로도 만들 수 없는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처럼 느껴졌다.

2016년 1월 26일(4일차)

날씨 : 맑음

오늘의 일정

▶ 요르단 문화탐방 i

- 25일: 암만 → 마다바 → 느보산 →
- 마케루스 궁 → 아르논 강 → 쇼박성 → 게스트 하우스
- 26일: 페트라 → 와디 럼 → 암만

느낌 및 감상

요르단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페트라와 와디럼에 갔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페트라에 발을 디디며 그 정교함과 경이로움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페트라를 제대로 보려면 최소 4일 정도는 투자해야 한다고 한다. 가는 내내 페트라를 보며 정말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왜 페트라가 세계 7대 불가사의인지, 죽기 전에 와 보아야 할 곳인지 저절로 수궁하게 되는 아름다움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 이면에는 페트라에는 물건을 팔고, 구걸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다. 같이 간 조원들이 상점에 들려 잠시 물건을 구입하기를 기다리며 아이들에게 다가가 대화를 하였다. 아이들은 페트라 안에 있는 동굴에서 다 같이 살고 있으며 어른들 밑에서 물건을 팔고 관광객들에게 구걸을 한다고 했다. 돈과 먹을 것이 없어 아이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제공해주지는 못했지만 20분정도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며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주고 고민을 들어주었다. 특수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에 소외된 계층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아이들과의 대화는 나에게 내 비전에 대해 다시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그 나라에 가서 문화재를 구경하며 그 나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의 사람들과 대화하며 그들의 생각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나에게서 상당히 더 중요하게 와닿는다. 페트라에서 교육의 빈부격차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는 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와디럼은 가장 아름다운 붉은 사막으로 유명하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지프차를 타고 와디럼 사막을 구경하고 도중 몇몇 곳에 내려 사막을 직접 걸어보았다. 와디럼은 아랍어로 높은 계곡이라는 뜻처럼 우뚝 솟은 바위산들과 모래사막이 어우러져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다. 두 시간동안 지프차를 타며 끝없이 사막을 달렸지만 지루하다는 생각 없이 감탄하며 와디럼을 구경한 것 같다.

2016년 1월 27일(5일차)

날씨 : 흐림, 비

오늘의 일정

- ▶ 요르단 한인교회 예배 및 점심식사
- ▶ 요르단 마트와 레인보우 스트리트 방문
 - 요르단 마트에서 기념품과 생활품 구입
 - 레인보우 스트리트에서 저녁식사

느낌 및 감상

요르단은 한국과 다르게 금요일과 토요일이 휴일이라서 금요일은 한인교회를 방문하기로 하였다. 무슬림이 90프로 이상인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교회가 있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한인들이 대부분 많으셨지만 아랍인들도 있어서 상당히 놀라웠다. 예배 후 한국은 설날 명절이기에 점심식사로 떡국을 챙겨 주셨다. 떡국을 먹으면서 요르단 한인 분들과 유학생들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뉴질랜드에서 몇 년동안 유학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말이 잘 통했던 것 같다. 요르단에서 지내면서 문화차이로 힘들었던 점, 한국이 그리운 점 등등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하였다.

오후에는 교수님, 선생님들과 같이 암만에 있는 쇼핑몰 중 하나인 메카몰에 방문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였다. 교수님과 같이 이 곳, 저 곳을 구경하며 요르단의 물품을 살펴보고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석류주스를 마시며 교수님께서 해주시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년 방학마다 청각장애특수학교를 위해 요르단에 와서 연수를 하시는 교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수교육이라는 것에 국내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는 시각을 더 넓혀 세계의 특수교육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겠구나라고 느꼈다.

저녁에는 안창남 교수님 부부께서 우리 학생들에게 저녁을 대접해 주셨다. 피자를 먹으며 젊음과 배움, 여행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말씀해주셨다. 교수님께서 젊었을 때 최대한 많이 여행하며 다양하게 시각을 넓히라고 하셨다. 또한 배우는 데에 있어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배워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이번 방학 학과공모제가 아니었다면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을 내 모습이 그려졌다. 좋은 기회로 요르단에 온 만큼 더 열심히 요르단에 대해 많은 것을 경험하고 특수교육에 대해 많이 배워가야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

2016년 1월 29일(6일차)

날씨 : 비

오늘의 일정

▶ 요르단 문화탐방 ii

- 암만 → 제라쉬 → 베다니 → 사해 → 마인온천 → 암만

느낌 및 감상

제라쉬는 고대 로마의 유적지로 로마보다 더 로마같은 곳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이다. 로마의 역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가이드분의 설명에 귀 기울이며 제라쉬를 관광했다. 전차 경기장과 광장, 열주로를 보며 그 당시의 로마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는 요르단의 현지화를 생각하여 히잡을 구매하여 히잡 착용법을 배워 히잡을 쓰며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요르단 사람들은 히잡 쓴 우리에게 호감의 태도를 보이며 말도 걸어주었다. 그 나라 문화와 관련된 것을 직접 경험하고 밖으로 보여주는 것은 그 나라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상당한 플러스를 늘 주는 것 같다.

베다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의 오빠인 나사로의 고향이며 예수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 일어난 곳이다. 또한 예수님께서 세례 받았던 곳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베다니 동쪽은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경계선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맞은편에는 이스라엘에 관광하러온 관광객들과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다. 거룩한 분위기에서 침례가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우리도 같이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했다. 기독교인 나에게도 베다니는 가장 인상 깊은 장소로 다가왔다. 세례를 받는 사람을 보며 내가 예전에 세례 받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또한 뉴질랜드에서 침례 받았던 기억이 나서 살짝 울컥하는 마음이 들었다.

사해는 피부가 예민해서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 하고 밖에서 사해를 지켜보았다. 사해 이후 마인온천으로 이동하였다. 마인온천은 폭포를 취한 형태의 온천으로 황염이 다량 함유되어 피부병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약 2천년전 예수 당시 헤롯왕이 피부병 치료차 자주 목욕을 즐긴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아침 일찍부터 시작한 일정으로 피곤하고 지쳐있었는데 마인온천에서 요르단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며 산에서부터 떨어지는 폭포를 맞으며 피곤함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늘 하루 동안 관광을 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 같다. 관광도 관광이지만 요르단 현지 사람들과 요르단의 문화 관광지에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다.

2016년 1월 30일(7일차)		날씨 : 맑음
오늘의 일정	사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연수수료식 참석 ▶ 요르단 전통음식 시식 ▶ 요르단 KOICA 소장님 간담회 ▶ 여행사 사장님과 저녁식사 	<p>- KOICA 연수수료식 참석(사진첨부)</p>	
느낌 및 감상		
<p>작년 여름 코이카를 통해 요르단에서 오신 특수학교 선생님 수업을 도와드린 적이 있었다. 코이카는 현재 요르단에 대한 많은 사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Marka에 있는 청각장애특수학교설립이 있다. 매년 방학마다 우리 학교인 강남대학교와 특수교사 연수를 진행하는데 이번 방학 연수 수료식에 우리가 운 좋게 참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연수 수료식을 보면서 요르단 현지 특수학교 선생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이중통역으로 더딘 진행이었지만 선생님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연수에 임하셨으며 수료식 마지막날까지 열심히 참여해주셨다. 요르단은 교사의 월급도 상당히 적은편이라서 이 월급을 가지고 일상적으로 생활하기에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은 청각장애 아이들을 향한 마음 하나만으로 이 길을 선택하시고 걷고 계시다는 사실에 많은 감동을 받았다. 기회가 된다면 청각장애특수학교 설립 이후에 꼭 한 번 다시 요르단에 방문하여 현장을 보고 체험하고 싶다.</p> <p>오후시간에는 코이카 소장님과의 만남의 시간동안 코이카에 대한 자세 설명과 소장님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비전이 코이카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와 비슷하다는 것을 느껴서 소장님께 많은 질문을 했다. 코이카가 어떤 절차로 요르단에서 청각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하게 되었으며, 그 지원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한지에 대해 여쭙어보며 앞으로의 나의 비전에 대한 꿈을 키웠던 것 같다. 소장님께서서는 여자이시고 젊은 나이이심에도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오셔서 활동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 휴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따스하게 맞아주시며 끝나는 시간에는 이것, 저것 많이 챙겨주셨다. 이번 요르단 탐방을 통해 코이카라는 국제협력단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되었고 한국에 돌아가서도 코이카의 향후 행보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다.</p>		

2016년 1월 30일(8일차)

날씨 : 맑음

오늘의 일정

- ▶ 요르단 문화탐방iii
- 암만 → 암만성(시타 델) → 암만
- ▶ 암만공항 출발

(사진첨부)

느낌 및 감상

한국 입국 전 다시 한 번 요르단 한국어학과 대학생들을 만나서 같이 암만성을 관광하였다. 그 나라를 알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암만성은 아랍어로 시타델이라 불리며 로마유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고대 유적지이다. 요르단 현지학생 빛나(한국어이름)가 가이드처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었다. 친구들이랑 많이 오다 보니 많이 배우게 되고 설명까지 외우게 되었다고 한다. 만약 요르단 친구들이 한국에 온다면 나는 우리나라 문화유산을 얼마나 잘 설명해 줄 수 있을까... 한국에 돌아가서 우리나라 한국사와 문화유산에 대해 공부 좀 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요르단 학교 개강이고 아침 이른 시간이었지만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준 요르단 대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감동했고 감사한 마음을 가졌다.

암만성 투어 이후 공항을 향하면서 많은 생각과 기분이 들었다. 처음 학과공모제에 요르단이라는 나라를 선택하여 신청하였을 때 불안한마음이 컸다. 요르단이 특수교육으로 유명한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고 무엇보다 중동지역이라서 안전에 대한 걱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르단이라는 나라에 직접 가서 요르단이라는 나라의 문화와 특수교육을 경험하며 초반에 가졌던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 기회가 된다면 여름에 있을 마지막 코이카 청각장애특수교육 세미나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더욱 밀접하게 배우고 싶다. 또한 특수교육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내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견문을 넓혀서, 시각장애특수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외국에 있는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경험을 하는 것도 굉장할 것 같다.

사. 대인관계 역량 최우수상

제목	Present from Canada		
지원 핵심역량	창의성 ()	전문성 ()	대인관계 (●)
	자기관리 역량 ()	정보기술 활용 역량 ()	의사소통 ()
	문제해결 역량 ()	글로벌 역량 ()	

저는 2015년 세무학과에 입학하였지만 일 년 동안 학교생활과 자기성찰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 문화 위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저는 국제지역학부로 전과 후, 제가 원하는 수업을 수강하며 제 꿈을 향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렇게 1년을 혼자 보내다 2학년 말, 학교에서 시행하는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인 ‘동계 글로벌 역량 강화 캠프’에 좋은 기회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계기로 시작한 비교과 프로그램은 제게 어학연수 기회 제공 그 이상의 것을 선물해주었습니다. 그 중 가장 크게 맺은 결실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학능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해외발령으로 1년 동안 필리핀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때의 경험이 제게는 외국인과의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건상 많은 외국인들과의 대화를 겪어볼 기회가 너무 적었고 한국에 돌아와서는 문법과 작문 위주의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듣기와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 항상 갈증을 느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캐나다 프로그램에서 내게 가장 부족한 두 가지를 채우고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캐나다에 가기 전 세웠던 학습계획처럼 매일 외국인들과 30분 이상 대화를 나눴고 그들의 문화와 생각을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특히 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해 있던 conversation group에서는 King’s college의 여러 학생 혹은 교수님들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 그 때마다 외국인들 옆에서 한국말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영어만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수업 시간에도 쉬는 시간을 활용하여 꾸준히 교수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평상시 기숙사에서 외국인 친구들 방에 놀러가거나 함께 라운지에서 저녁을 먹으며 얘기를 나눈 결과, 같은 프로그램에서 수업을 듣던 학우 분들에게 ‘말하기는 장민지가 가장 잘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교수님들이나 외국인 친구들도 영어실력이 뛰어나니 나중에 해외에서 취업하는 것을 고려해보라는 조언도 듣게 되었습니다.

짧지만 한 달 동안 다른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언어가 가진 힘을 깨닫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입니다. 저는 인간관계에서 선을 그어두고 관계를 쌓기 때문에 처음 만난 사람과 쉽게 말을 트거나 대화에 참여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이번 연수에서 내가 가장 나이도 어리고 아는 사람도 한 명 없는데 과연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저의 부족함을 보완할 장점을 가진 룸메이트 언니를 만나서 많은 인생의 조언을 듣고, 그 언니의 행동방식을 보면서 사람을 만날 때 두려워하던 마음을 벗어던졌습니다. 차츰 언니와 함께 길에서 만나, 혹은 음식점에서 만나는 외국인들에게 스스럼없이 말을 걸게 되고 그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숙사를 쓰던 캐나다인, 중국인 친구와 함께 시내에 나가 밥을 먹고 어울려 얘기를 나눌 수 있던 것도 한 달 동안 많은 새로운 사람들과 생활하고 어울리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역량강화캠프를 통해 저는 너무 귀한 한국인, 외국인 친구들을 얻었고 꾸준히 연락하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줄 좋은 친구가 생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캐나다에서 커다란 결실을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위의 두 가지 이외에도 정말 많은 것을 얻고, 배우게 되었고 한 달이라는 시간동안 복합적으로 여러 역량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캐나다라는 외부 자극과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글로벌 역량이 강화되었고 King's 대학에서 수강했던 research수업과 presentation수업을 통해 나의 생각과 조사한 정보를 청중들에게 이해시키고 올바르게 전달함으로써 의사소통 역량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습관적으로 해오던 삶의 쳇바퀴에서 벗어나 온전히 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됨을 통해 매순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도전하며 자기관리 역량도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역량강화캠프를 다녀온 뒤, 전과 한 학부에서 새로운 친구들과 어울리기 힘들어 1년 동안 혼자 학교를 다니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생겼고, 앞으로 걸어갈 삶 속에 좋은 언니 오빠들과 외국에 있지만 마음을 공유할 외국인 친구들이 생겼다는 점이 한국에 돌아온 지금도 가장 큰 결실이라고 느껴져서 ‘대인관계역량강화’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 증빙첨부 (역량강화캠프 활동사진)

(사진 첨부)

한 달 동안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의 삶을 배우고 나눴던 학교 선배, 친구, 교수님

(사진첨부)

(사진첨부)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함께 다닌 Ellena(좌) 와 Kendra(우)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도와주는 친구들이었는데 특히 교외 활동에 함께 하면서 마치 외국인 친구들과 캐나다를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다. 수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 중인 Ellena와 교육관련 직업을 꿈꾸는 Kendra는 나와 나이는 비슷하지만 자신의 꿈을 향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인 것 같아서 나에게 좋은 도전이 되었던 것 같다.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사진첨부)
<p>가장 많은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었던 언니들과 친구. 각자 다른 과에서, 다른 환경에서 살다가 만나서 자신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공유하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었다. 00언니(좌측 사진 좌측 위)는 ‘혼자’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내게 홀로서기가 얼마나 당당하고 멋있는 일인지 언니의 삶을 통해 보여주었고, 00언니(좌측사진 좌측 아래)는 실천성 있고 꼼꼼한 성격으로 내게 계획의 중요성을 알려주었다. 00언니(우측사진 우측아래)는 유일하게 캠프 참가자 중 같은 기독교인이었는데 함께 교회를 나가고 Western university의 한인기독교대학생 모임에 참가하면서 여러 고민에 대해 나누었다. 종교라는 큰 가치관과 신념에 대해 이해해주고 공감해준 사람이다. 마지막으로 00언니(우측사진 우측위)는 룸메이트였는데 비슷한 점도, 다른 점도 너무 많았지만 내 삶의 주체는 내가 되어야한다는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지키기 어려운 진리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주었다. ‘나’ 보다는 ‘남’이 먼저였던 내게 ‘너 자신을 찾으라.’고 말해주며 언니 또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서 한 달 동안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언니였다고 말하고 싶다.</p>	

아. 의사소통 역량 최우수상

제목	기회에도 자격이 있다? 기회를 주면 자격을 갖춘다!		
지원 핵심역량	창의성 ()	전문성 ()	대인관계 ()
	자기관리 역량 ()	정보기술 활용 역량 ()	의사소통 (●)
	문제해결 역량 ()	글로벌 역량 ()	
<p>2016년 3월, 부동산학과에 입학 후 부동산인으로서 내가 걷고 싶은 전문분야에 대해 고심했다. 장차 대한민국 부동산업계에 나의 능력을 기여하여 더욱 발전한 나라와 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어떤 분야가 나와 가장 적합할 지 탐구하기로 결정한 후 다양한 활동들을 스스로 선택했고 학교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그 출발점은 강남대학교 학생역량지원센터로부터 시작되었다. 2016년 1학기말 실시한 교과-비교과 연계 자기설계 로드맵 공모전에 참여하여 내가 원하는 단기적, 중기적, 장기적 목표를 로드맵 작성으로서 가시화한 결과, 공모전에 입상하여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고 그보다 더 값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화할 수 있는 경험과 그 결과물을 얻어냈다. 이후 로드맵에 작성된 내용대로 더욱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p> <p>그 해 하계방학에는 강남대학교 취업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강소기업 체험프로그램에 유일한 1학년으로 참여하였고, 타 과 선배들과 함께 KT&G 상상univ. 경기지점에서 4주간 대학생 인턴십을 수료하였고 75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기업체험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와 전략, 지원서작성, 면접준비 등 중요한 사안들과 고학년 대상인 해당 프로그램을 1학년인 신분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신 취업지원팀의 조은혜 지원관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런 값진 기회와 경험을 누릴 수 없었을 것이다.</p> <p>인턴십이 끝난 후, 방학을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또 한번의 기회가 찾아왔다. 취업지원센터에서 나의 인턴십 평가결과가 좋고 공석이 남아있으니 취업캠프에 참여해보라고 추천해주었다. 현대와 같은 취업난 속에서 워크넷에서 주최하는 경기권 지역에 있는 6개 주요대학의 연합취업캠프에 공석이 생겼다는 것은 나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주었고 역시 참여하여 이력서첨삭, 마케팅교육과 인사담당자들의 토론면접, PPT면접, 1:1면접, 1:多면접 과 강연들을 듣고 경험했다. 성공하기위해 필요한 나의 기초자료를 습득하는 ‘주제파악’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 나아가야할 길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그것은 마치 찬물 샤워한 듯 정신이 바짝 들면서 상쾌한 느낌을 주었다.</p>			

2학기가 시작한 후 부동산협회에서 주최한 부동산업계진출 취업, 학업계획서 공모전이 있었다. 전국 부동산학을 전공하는 모든 대학생,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하는 사회환원식 장학금지원사업이었는데, 난 교내 자기설계공모전에서 구상하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수정, 보완하여 해당 공모전에 참여했다. 결과는 당선이었고 중간절차 없이 바로 장학금 100만원을 수여받았다. 이 공모전은 학교문자가 계속 오는 바람에 지원하게 된 활동이다.

2016년 동계방학에는 부동산업계에 진출할 전문분야선택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실전에 적용시켜 보기로 했다. 친구가 운영하는 정자동 카페거리에 입지한 일식주점에서 함께 일을 하게 되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것을 직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고 그것을 하기위한 자가용과 장비 등의 수단과, 인테리어 및 내부배치 재구상 등에 필요한 비용을 장학금과 공모전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다. 가게의 마케팅, 서비스, 요리, 신메뉴 개발, 인사관리, 부동산임대료 관련 업무등 전반적인 운영을 친구와 함께 할 수 있었고, 인사개편과 단골고객층 형성, 12월-1월 매출액 유지의 결과를 얻었다. 하지만 해당입지는 현재 고객층이 많이 줄고 있는 불리한 입지가 되고 있어 처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험으로 인해 모든 사업에 있어서 '부동산 입지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가'에 대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올해 초, 가게를 그만둔 뒤 그 때의 경험으로 입지를 평가하는 것에 관심이 생겼다. 부동산학과의 11학년 재학 중인 감정평가사 선배를 직접 찾아가 조언을 구했다. 선배는 성심성의것나의 궁금증을 모두 풀어주었다. 선배와의 소통 다음날, 신림동에 있는 감정평가사 주요 학원 5곳에 찾아가 평가사가 되는 공부를 하는 과정을 상담을 받았다. 현재의 나는 이번학기를 마치고 휴학 후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할 것이다.

무언가를 하고자하는 욕구가 생기면 궁금증이 생기고, 궁금증을 해결하기위해 방법을 강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아실현의 프로세스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회와 노력이 상호작용을 이루어야 한다고들 말한다. 또한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기회를 얻을 자격이 없다고 말한다. 강남대학교는 이것을 뒤집는다.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닌, 기회를 주어 자격을 갖추게 한다. 난 운이 매우 좋은 편이다. 강남대학교 학생이기에 여러 가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나 자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운과 상호작용을 이루게 해주고,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 매체는 강남대학교다.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이게 된 것도 학교의 지원덕분이고 '강남은 사랑입니다', '경천애인' 의 의미에 걸맞게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교육과 지원사업은 사랑이 많은 것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무엇보다 그 사랑은 주님으로부터 강남대학교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학교생활을 통해 나의 역량을 발견하고 키워나가고 있다. 자기설계공모전으로 자기관리역량을, 인턴십으로 대인관계 역량,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을, 취업캠프에선 정보기술활용역량과 글로벌 역량을, 현재는 감정평가사 준비를 하고 취득을 하게 되었을 때 더욱 증진될 전문성 역량까지 다양한 역량을 키우고 참여로서 실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위의 교내외 활동들을 참여함과 동시에 같은 학과 선배와 일목요연한 자발적 소통을 통해 내가 원하는 정보자료들을 수집하고 현재 나의 목표인 감정평가사 도전까지 적용시키고 도달하는 것에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한 점을 강조하고 싶다. 또한 수기를 통한 의사소통으로 나의 역량을 더욱 증진시키고 기회를 기회로 받아들이는 누군가가 이 수기를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수기 자체가 나의 의사소통 역량의 실천사례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응모하게 되었다.

증빙 첨부— 2016년2학기 교외 부동산협회 학업계획서공모전(인턴십증빙자료포함)
학업(업계진출)계획서

<목차>

- I. 진로설계— 인생목표와 필요역량강화를 위한 학업계획
- II. 자기분석— 구체적인 학업계획 달성을 위한 사전 SWOT분석
- III. 학업계획— 대학교과과정에 따른 각 학년, 학기 별 학업계획
- IV. 실천현황— 2016년 2학기, 현시점까지의 실천현황
- V. 내용설명— 학업계획서에 대한 단계적 내용설명
- VI. 느낀점 — 계획서를 작성하며

I. 인생목표 및 학업계획	부동산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개발 Program을 개발 및 운영하는 자기개발 전문가로서 리더십, 창의성, 대인관계, 자기관리 역량강화에 Focus 를 맞춘 학업계획서 작성 및 실천현황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
----------------	--

II. 자기 분석(SWOT 분석)	
▶ 자신의 장점(Strength)	▶ 자신의 단점(Weakness)
긍정적, 사교적, 적응력이 뛰어남, 처세술에 능함, 도전적, 진취적, 이상주의적 사고방식, 잡학다식,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	끈기와 지속력의 부족, 고집이 센 편, 현실과 타협하기를 싫어함, 관심 없는 것을 무시해버리려는 경향이 있음
▶ 기회(Opportunity)가 될 수 있는 부분	▶ 위기(Threat)가 될 수 있는 부분
내가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도전정신과 대인관계능력에 탁월하여 상대방을 대할 때 특유의 배려와 매너로 나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 가는 매우 유용한 장점을 활용할 줄 앎	끈기와 학습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해 관심이 없는 분야에 대해선 쉽게 지나쳐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그러한 무관심과 무지에서 오는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음

Ⅲ. '부동산 전문인을 양성하는 자기계발 전문가' 가 되기 위한 학년별 학업계획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전공 교과명	전공기초	[1학기] 1)부동산학개론 2)부동산경제학			
		[2학기] 1)부동산기술론 2)부동산계량론			
	전공선택		[1학기] 1)부동산입지론 2)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1학기] 1)자산시장과 포트폴리오 2)부동산개발론 3)진로지도상담I	[1학기] 1)부동산실무 2)부동산보상평가론 3)부동산공시법 4)진로지도상담III 5)현장실습 6)졸업종합평가
			[2학기] 1)부동산시장 분석론 2)부동산중개론	[2학기] 1)부동산 감정평가론 2)부동산마케팅론 3)진로지도상담II	[2학기] 1)부동산컨설팅 2)부동산투자론 3)진로지도상담IV 4)현장실습 5)졸업종합평가
교양 교과명	교양필수	[1학기] 기독교와현대사회 Academic English I 인성과학문 I 채플 I	[1학기] 인성과학문 III 채플 III		
		[2학기] 글쓰기 Academic English II 인성과학문 II 채플 II 컴퓨터프로그래밍	[2학기] 인성과학문 IV 채플 IV		
	교양선택	[1학기] 1)성공학 2)창의력트레이닝 3)경제원리의이해	[1학기] 1)리더십과 의사결정 2)미래학 3)사회봉사	[1학기] 1)Servant Leadership 2)이미지메이킹	
		[2학기] 1)기독교와리더십 2)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3)창의력트레이닝 4)취업과진로	[2학기] 1)글로벌리더십 2)매너와태도 3)사회봉사	[2학기] 1)어학연수	

비교과 프로그램	학생학습지원			장학복지팀 주관 글로벌 리더십 영미권 어학연수 지원예정	교수학습지원센터 주관 튜터링 프로그램의 튜터로 지원예정
	진로 및 심리상담지원		하계방학기간 중 글로벌사회공헌 센터 주관 해외봉사단 지원예정		
	취.창업지원	하계방학기간 중 취업지원팀 주관 강소기업체험 KT&G마케팅부서 교육과정수료 및 근무종료(2016.07.29)			
외부 활동	교외 활동	동계방학기간 중 송파참빛교회 주관 해외봉사선교활동	동계방학기간 중 미국LA 유학원 개인단기어학연수	NH공사, SH공사 학생단기인턴지원	부동산투자개발 기업의 입사지원

— 빨간색 글씨(1학년1학기)는 이미 완료된 계획임.

IV. 계획실천 현황

— ktng 기업체험 프로그램 수료증 (하단사진첨부) V. 학업계획서에 대한 설명

V. 학업계획서에 대한 설명

[내 인생의 목표와 그것을 이루고 싶은 이유(동기)와 배경]

내 인생의 최종목표는 자기계발 컨설턴트로서 사람들을 그들의 개인적 분야에서 성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이다. 나는 중학교 때 ‘사자같이 젊은 놈들’이라는 책을 통해 구본형 이라는 작가를 알게 되었고 그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개척되지 않은 분야인 자기계발분야에서 변화경영을 추구하는 저명한 컨설턴트 였다. 2013년에 그가 생을 마감할 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것을 봤을 때, 나도 그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성공으로 이끌고 변화할 수 있게 만드는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 시기 쯤에 접한 19세기 사상가인 랄프 왈도 에머슨의 강연을 옮겨적은 서적들을 보면서 나의 사상과 가치관이 더욱 자기계발 전문가가 되고싶다는 의지로 가득차게 변화하였다. 내 인생의 목표를 자기계발 컨설턴트가 되고싶다고 설정하게 만든 두명의 핵심인물인 구본형과 랄프 왈도 에머슨은 태어난 시대도 배경도 모두 다르지만, 확연한 공통점이 있다. 두 사람 모두 자신의 분야에서 저명한 학자들 이었으며 대인관계, 자기관리에 능했고 강단에 서서 강연을 하고 책을 저술함으로써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것이다. 나는 자기계발 컨설턴트가 되겠다고 결심한 그 때엔 막연한 고민들로 하루하루를 보내곤 했다. 그것이 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지 방법을 모르고, 또 어떤 공부를 하면서 어떤 능력을 계발해야 하는지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지도자들을 찾아다녔다. 군복무 시절엔 상관들과 내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언을 구했고 가정에선 아버지와 국내기업의 각 위치에서 근무하시는 삼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현재는 내가 속해있는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와 전공 지도교수님들에게 내 목표에 대한 방향성과 전문성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받은 결과, 모든 사회적 전문분야를 아우르는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원대한 줄만 알았던 나의 꿈이 장황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내게 큰 충격과 깨달음을 주었다. 반면에 각각의 전문분야의 지식이나 경력이 풍부하거나 해당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사회적 전문분야 별로 요구되는 팀워크, 리더십, 대인관계 능력과 해당분야만의 언어들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맞는 맞춤형 자기개발 전문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는 다양한 전문분야 중에서도 내가 현재 관심있게 배우고 있는 과목인 부동산 분야의 맞춤형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보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부동산 전문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기개발 Program 개발과 운영을 하고 그들을 연결시켜 전문분야의 인프라를 더욱 효율적으로 구축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컨설턴트가 되고 싶다. 그에 따라서 내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부동산 전문인을 더 큰 성공으로 이끄는 컨설턴트를 하면서 쌓은 커리어를 기반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그 한계를 부숴버릴 수 있는 시대의 진정한 자기개발 컨설턴트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능력들과 단계적(기간별) 역량강화계획]

최종목표 이전에 장기적인 목표는 부동산개발 전문가로서 주변환경을 파악하는 능력과 사람들로 부터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정보습득력, 분석력을 키우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목표이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생활 4년간의 중.단기적 목표는 최종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내가 20대에 반드시 함양해야 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리더십 역량강화와 언어능력과 학습능력의 향상, 학과관련 공부를 함에 있어서 끈기있게 학습하고 파고들 수 있는 집중력과 창의력을 키우는 것이다. 위의 학업계획서는 이 것들을 중점적으로 고려한 내가 대학생활동안에 개발하고 싶은 위 능력들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 교과목을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생활 4년 동안의 시기별 학업계획]

① 1학년 (수료증 사진 첨부)

나의 대학생활 학업계획은 1학년부터 4학년 때 까지의 흐름을 항상 스스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내 성격 상 한번 상승기류를 타기 시작하면 연이은 성공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있다. 내 삶의 가치관이 그대로 반영된 위의 계획에서 1학년 계획을 살펴보면 학과 공부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나의 강점이자 관심분야인 리더십 관련 교양과목들 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학기 당 전공기초 2과목씩을 제외 한 다른 과목들의 활용계획은 첫 번째로 기독교와 리더십,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두 과목을 통해 나의 장점인 대인관계능력을 더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창의력트레이닝 과목을 창의성을 증진시킬 기회로서 활용할 것이며, 이미 지난 1학기 기간동안 창의력트레이닝 과목을 수강하며 원하는 방향의 자기개발을 실천하고 있었다. 세 번째로 취업과 진로 과목을 통해 하계방학기간 동안 수원 팔달구에 위치한 kt&g 기업체험을 함으로써 대인관계능력을 직장생활의 현실에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학년 동계방학기간 동안엔 주말마다 가는 송파구 마천동에 위치한 참빛교회에서 겨울해외선교 및 봉사를 가서 교외활동에서만 키울 수 있는 자기관리와 대인관계역량을 함양함과 동시에 견문을 넓히는 좋은 기회로서 활용하고 싶은 마음으로 계획을 했다. 2016년도 1학년 1년 동안의 학업계획 주제는 교양과목과 대외활동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만든 ‘강점을 더 강하게’이다.

② 2학년

2학년 시기를 계획한 부분을 보면, 도시계획과 부동산개발 전공교과목을 필수로 수강해야 하며 해당과목은 내가 앞으로 부동산 개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초석으로써 기초적인 지식을 학습할 수 있는 관심교과이다. 이 과목과 다른 전공교과를 통해 내 약점인 상대적으로 부진한 학습능력과 어려운 전공과목을 완벽히 학습할 수 있는 끈기를 기를 수 있을 것이다. 미래의 직업과 관련이 있는 관심분야이면서 전공과목인 부동산개발은 내가 2학년 동안 나의 약점을 보완하고자 노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에서 지원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중 글 로컬 사회공헌센터 주관 해외봉사단에 지원예정이며 선발되었을 시 해외봉사를 통해 대인관계 능력계발과 봉사를 통한 사회공헌 및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학년을 마무리하는 동계방학기간엔 2학기 기간 동안 수강한 교양과목인 글로벌 리더십의 본 고장이라 할 수 있는 미국으로 언어능력 함양과 자기관리 및 해외문화탐방과 커뮤니케이션 역량강화를 위해 약 3개월간 단기유학을 할 계획이다. 2017년도 2학년 1년 동안의 학업계획 주제는 3,4학년 동안 전공심화 학습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학습능력과 끈기를 키울 수 있도록 계획한 ‘약점을 보완하고 당당히 세계와 마주할 수 있는 견문 넓히기’이다.

③ 3-4학년

3학년과 4학년 시기엔 전공필수 과목인 부동산컨설팅, 부동산개발론, 부동산 감정평가론, 현장실습, 졸업종합평가 등 이 있다. 얼핏 보면 교과과목 위주의 정해져 있는 교육과정대로 해야만 하는 딱딱한 학습계획처럼 보여진다. 하지만 위 교과과목들을 이수함으로써 부동산개발 전문가의 기본소양을 갖추 수 있게 되고, 4학기 동안 진행하는 전공 교수님과의 진로지도상담을 통해 더 뚜렷하게 내가 가야할 길을 알 수 있게 됨을 확신한다. 실현가능성을 고려하며 작성하다보니 3학년, 4학년 시기에 교양과목을 선불리 놓지 못했다. 하지만 전공과목만으로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능력을 계발할 수 있고 3학년에 4학년에 넘어가는 시기에 비교과 프로그램으로 지원하는 어학연수를 신청할 생각이다. 1,2학년 때 계획을 잘 이행하면 3학년 때 어학연수를 지원하여 선발자격요건에 충분히 맞는 학생이 될 것임을 예상하여 해당 시기에 계획을 해놓았다. 4학년 때는 위의 계획대로 충실히 따라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튜터링 프로그램의 튜터로서 현재 1학년의 나처럼 앞으로 어떤 의미의 학교생활을 할 것 인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끊임없이 모색하는 후배들을 만나고 그들을 성공적인 학교생활로 이끄는 것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최종목표인 자기계발 전문가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VI. 부동산학부 재학생 학업계획서 공모전을 작성하며 느낀점(소감 및 향후 실천계획)

나는 위 학업계획대로 정확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내가 소속되어 있는 35년 전통의 뿌리 깊은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는 2017년도부터 같은 학교 건축학과와 통폐합이 되어 부동산건축학부로 새로이 전공교과과정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에 따른 교과과정 변경사항에 대한 확정공지가 내려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비교과와 대외활동을 제외한 교과과정에 있어서는 위의 계획대로 대학생활을 하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학업계획서 공모전을 통해 4년간의 중·단기적 대학생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 생각하고 설계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좀 더 알게 되었고 내가 대학생활 동안 무엇을 얻고 싶고 어떤 의미로서 이 기간을 활용하고 싶은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교과과정이 바뀌더라도 내가 설계했던 ‘부동산인으로서 나’의 최종목표를 지표로 삼고 방향성을 잃지 않고 계획을 실행하는 중간에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수정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오히려 이 활동이 나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생의 중간점검과 같은 활동이었다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주체적이고 독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나의 인생관에 더욱 의미를 부여하는 활동이었고, 내 인생의 가치를 높여주는 매우 기쁘고 감사한 활동이었다.



강남대학교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구갈동)
TEL:031)280-3107 FAX:031-280-3159